석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자 사례연구

2021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독예방 상담전공

박 지 순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민 희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자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drug abusers who experienced drug abuse in adolescence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독예방 상담전공

박 지 순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조 민 희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자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drug abusers who experienced drug abuse in adolescence

위 논문을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독예방 상담전공

박 지 순

박지순의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자 사례연구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 독 예 방 상 담 전 공
박 지 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약물남용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특히 뇌의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접하게 되는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폐해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폐해의 심각성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보호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물의 위해성을 중심으로 약물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 및 발달 과업상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따른 영향 및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약물남용의 심리적 욕구로서의 매슬로우의 이론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약물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약물남용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10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CQR(Consensual Quality Research) 질적 연구방법론을 실시하였고, 그 연구 방법에 따라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약물남용의 문제는 사회에서 1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에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차적 사회화 담당 기관인 학교가 그러한 가정에서 양육의 부재를 겪은 청소년들에게 일괄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과정에서 또한 소외를 느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상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약물남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는 그들 청소년에게 약물이 아닌 다른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회화 과정을 선택하고 실현시켜 주어서 건전한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의 체험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하게 된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청소년, 약물, 약물남용, 약물남용의 요인, 욕구이론

목 차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제2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 5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약물 관련 용어의 개념적 정의 8
제2절 약물의 종류 11
제3절 청소년과 약물남용 25
1. 청소년의 개념적 정의 25
2. 청소년의 신체 및 사회 심리학적 특성.....26
3. 청소년 약물남용의 유형.....28
4.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요인.....29
5.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영향.....31
제4절 매슬로우의 욕구이론과 약물남용.....33
1. 기본 욕구의 특성.....33
2. 기본 욕구의 5 단계.....34
3. 욕구이론과 약물남용.....38

제3장 연구방법 41

제1절 연구대상 41
제2절 연구방법 42
제3절 연구절차 및 분석 43
제4절 연구의 엄격성.....46

제 4 장 연구 분석 결과 49

제1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과정 49
제2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유형 55
제3절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62
제4절 약물남용자의 단약 결심 요인 74

제 5 장 결론 및 논의 77
제1절 결론 및 요약 77
제2절 논의 및 제언 82

참고문헌.....86

부록.....93

ABSTRACT 94

표 목 차

〔 표 2-1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35
〔 표 3-1 〕 CQR의 4단계 연구절차 흐름도.....43
〔 표 4-1 〕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 전개 과정 흐름도.....49
〔 표 4-2 〕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과정.....50
〔 표 4-3 〕 청소년 시기의 약물남용의 유형.....57
〔 표 4-4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개인적 요인.....63
〔 표 4-5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가정적 요인.....67
〔 표 4-6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70
〔 표 4-7 〕 약물남용 경험자의 단약 결심 요인.....7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사회는 중독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중독현상이 만연한 나라가 되었다.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아이돌의 초유의 마약류 범죄 사건인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면서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클럽 문화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2020년도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19)에 따르면 2019년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6,044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에 마약류 사범이 12,613명인 것을 대비하면 27.2% 증가하였고,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은 4,225명으로, 전년도 대비 28.3%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을 '마약 청정국' 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유지해 왔던 마약 정책 통제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UN(United Nations)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류 거래 사용 등으로 체포된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이면, 마약지수가 20 미만으로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린다. 한국의 경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마약류 사범 수가 연간 1만 2천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검찰청의 보고에 의하면 마약류 사범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급기야 16,04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중 눈에 띠는 현상은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급증한 것이다. 즉, 2019년도의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18년도의 143명에 대비하면 무려 67.1% 급증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청소년의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나라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다(대검찰청, 2019, 233).

특히 이 중에서도 14세 이하의 촉법 소년도 2명이나 적발되는 등 연령대가 점점 하향화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실태는 한국에서 대책을 간구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당면한 실정인 것이다. 그동안 약물남용 청소년의 연구는 많이 행해졌으나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 실태 조사와 현황, 그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되어서 연구 되어졌고,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방법으로써 질적 연구를 한 연구는 10편의 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첫째, 약물남용 경험자들이 어떻게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들과 함께 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가? 둘째,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약물남용에 이르게 되는 요인들을 통해 우리가 성찰하여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에 이르게 되는 요인과 유형 및 그 영향을 밝히기 위해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10명의 약물남용자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CQR 질적 연구법(CQR :Consensual Quality Research)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예방 및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어디서나 인터넷이 사용가능하고 지하철이나 거리, 학교, 관공서등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느 곳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이 가능하기에 청소년들이 알코올, 담배, 마약류 등 유해 물질의 남용에 노출되기가 쉽다. 아직 신체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유해 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정서적, 육체적 폐해는 크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청소년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방책 및 치료, 재활 등의 다양한 대책 등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9년에 나타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의 인원인 16,044명 중에서 239명이나 청소년이 적발된 것은 한국 사회는 이제 인터넷이나 소설미디어를 이용하여 청소년까지도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의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인터넷상 거래 방식과 다크웹(Dark web) 상에서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은밀한 거래방식에 민감한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점점 더 청소년의 약물남용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불 보듯 명확한 일이 되었고,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약물의 종류와 특성 및 중독의 특성을 이해한 후에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 및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에 이르게 된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약물남용의 진정한 동기와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 면접을 하였고, 이에 따른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위해 연구 분석팀과 함께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CQR 질적 연구법 (CQR :

Consensual Quality Research)을 사용하였다. CQR 질적 연구법은 청소년기에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을 구성할 때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로써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적합한 연구 방법론이다. 이러한 CQR 질적 연구법을 적용하면서 10명의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질적 연구의 특성상 심층 면접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약물남용 청소년 5명과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 중독 성인 5명, 총 10명의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약물남용 전체 청소년에 대한 일반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며,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직접 얻은 자료이므로 주관적인 면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성별이 남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계속적이고 급격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증가라는 현 시점에서 이뤄진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 경험자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가 제공하는 연구 자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제 2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질 좋은 자료의 수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연구의 신뢰성의 여부 즉, '과연 연구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한 여부이고, 질적 연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공정하고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연구대상의 경험을 가능한 정확하게 그려내는 연구인 것이다. 그러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연구는 윤리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가 가지는 신뢰성(reliability) 및 정확성(accuracy), 타당성(validity)의 평가기준을 지킴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중단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주기적으로 연구자 자신을 돌아보며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 분석팀과의 회의 및 오랜 기간 질적 연구 경험을 가진 현장 실천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편견이나 감정들을 배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동기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가벼운 만남들을 가지면서 라포를 형성하였고, 의사를 명확히 한 후에는 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의 첫 심층면담에서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인터뷰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녹음 내용은 본 연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비공개되며 연구목적 외의 다른 이유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또한 진술된 내용은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연구 참여자 중 개인이 원할 경우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 3 절 선행 연구의 검토

그동안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중독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양훈(2014)의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윤민우(2012)의 '부정적인 자아감과 마약 사용', 김소야자, 공성숙, 김명아(2000)의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 조아미(2011)의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과 약물 사용', 이 외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약물남용의 영향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을 약물남용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청소년 약물 중독과 관련된 연구 방법의 대부분이 양적 연구 방법이었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김귀분, 이경호(2000)의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과 김미희(2002)의 '약물남용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이소우, 김미희(1996)의 '약물남용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외에 10편 정도에 불과하였다. 마약류 등의 약물남용 청소년의 질적 연구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필요성에 비하면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하는 분야일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자아존중감을 들고 있는데, Mason(1984)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약물을 남용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 Owens(1994)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및 비행의 원인으로 학교나 가정 등에서 받은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신동업(2014)은 청소년들은 그 성장 발달과정 상에서 겪는 불안감, 즉,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하는 발달과제를 안게 되는데, 이러한 발달과제와 함께 밀려오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에 불안을 겪게 하고, 이와 함께 가정 및 학업 등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준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충동적 특성이 약물의 남용을 불러일

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으로는 홍서아(2018)는 부모의 이혼, 방임, 무관심,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 등이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헌수, 김현실(2002)은 약물남용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는 일반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가정의 불안도가 높고,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윤경(2008)은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유아기에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격 및 정서, 자아개념, 가치관 형성, 약물남용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송광선(2002)은 또래의 친구관계 유지와 친밀감을 위한 수단적 도구로서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정혁, 강동욱(2018)은 지역 사회의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호기심으로 시작한 약물은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가중시키는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유형으로는 장혜수(2000)는 모두 7가지 유형으로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성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의 7가지 유형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약물 관련 용어의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약물이라는 용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약물'(drug)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마약류'(narcotics)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물질'(substance)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을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통칭하여 '약물'(drug)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약물남용 및 약물중독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약물과 약물문제에 관련된 용어인 약물중독, 약물 오용, 약물남용 등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약물 및 약물중독의 개념이다. 약물(drug)이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misuse)이나 남용(abuse)할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 약물 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둘째, 사용할 때마다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셋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사회적 해악성)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검찰청, 2019, 18). 결국 약물의 이와 같은 속성은 중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중독의 사전적 정의는 중독이란 '약물(藥物), 독물(毒物), 독소(毒素)의 독성에 치여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그 경과에 따라서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으로 구별할 수 있다'(민중서림, 2008)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캠브리지 영어사전(Th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3)에 의하면 중독(addiction)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인 마약류 치료보호 규정 제2조 2호에서는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 약물 중독을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마약류 치료보호 규정 제2조 2호). 이러한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심리적 의존' 상태란 약물을 안 하면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는 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뇌의 쾌락과 관련된 부위에 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몇 분간 만 참으면 지나가게 되는 것으로써 그 몇 분 만을 잘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조성권 외, 2007, 225). 그리고 약물에 대한 '신체적 의존' 상태란 약물을 반복 사용하면 약물에 대한 생리적 요구가 형성되어 약물을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데 이를 '내성'이 생겼다고 하며, 이러한 '신체적 의존'이 생긴 경우에 갑자기 약의 사용을 중단하면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금단 증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체적 의존'은 약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욕구인 '심리적 의존'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심리적 의존성이 형성되면 약물이 주는 효과를 계속적으로 보기 위하여 강박적인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에 대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모든 의존 상태를 '중독 상태'라고 한다(Denis Richard, 2011, 186).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약물중독'(drug addiction)이란 약물의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강박적 사용으로 생기는 개인 및 사회에 위해한 현상을 말하고, 약물중독자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약물을 얻어서 사용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사용약물의 양을 늘리며, 약물의 효과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갖는 뇌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약물 오용(drug misuse)의 개념이다. 약물 오용은 의사나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약물 오용에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과 각성제, 신경안

정제 등 의학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의약품을 비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약물이 사용될 수 없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Girdano & Girdano, 1976, prologue 10). 약물 오용은 특정 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오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회적, 직업적, 신체적 장애를 초래한다.

셋째, 약물남용(drug abuse)의 개념이다. 약물남용은 약물을 의학적 목적이 아닌 환각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물남용은 내성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내성으로 인해 그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뇌의 보상회로의 변형을 초래해서 결국은 약물 의존으로 이르게 한다(조성권 외, 2007, 178-179). 이러한 약물의 남용은 뇌의 변형을 가져 오게 되므로, 그 약물이 없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의존 상태인 약물중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약물의 종류

DSM-5판에서는 약물의 종류를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APA, 2020, 527-639). 약물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DSM-5판에 나오는 약물의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DSM-5판에 나오는 약물의 분류를 보면 알코올, 대마, 환각제, 흡입제, 아편제,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자극제, 담배, 기타 물질로 약물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의 종류는 완전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DSM-5판에서 분류된 모든 약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약물을 복용할 때는 행동과 기억 생성을 강화하는 뇌 보상 체계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점이며, 이들은 강력하게 보상 체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뇌 활성화 신호들은 무시하고,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고, '고양감'(high)이라고 불리는 쾌락을 만든다는 것이다(APA, 2020, 527). 이렇게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여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은 중추 신경을 억제하는지, 흥분시키는지, 그리고 동시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는 것을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하고, 흥분 시키는 것을 '중추신경 흥분제'라고 하며,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환각제'라고 한다(최은영, 2008, 21). 이러한 약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코올(Alcohol)

알코올이란 에탄올을 1% 이상 함유한 음료를 총칭하며, 에탄올은 두 개의 지방족 탄소 고리 즉, 에틸기(CH3CH2-)와 하나의 수산화기(-OH)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로 분류된다(최삼욱 외, 2013, 5). 이러한 화학 물질을 가진 알코올은 중추신경제의 억제 및 진정제의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1차적으로 중추 신경계를 억제시키며, 그 억제 정도는 섭취된 양에 비례하는데, 이 때 억제되는 신경은 흥분성 신경 뿐만 아니라 억제성 신경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흥분적인 행동이 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정효과가 발현되는 등의 개인차가 발생한다(김성이, 2006, 19). 알코올은 이 뿐만 아니라, 중추 신경계 억제에 따라 행복감, 수다, 공격성, 행동조절 능력 상실이 두드러지게 증가되며, 혈중 에탄올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긴장 완화의 상태는 억제기능 감소, 불분명한 발음, 정신적 기민함 감소, 반사반응 감소, 혼수로 전환되고, 마침내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최삼욱 외, 2013, 7).

2. 대마초(Marijuana)

대마초라고 불리는 마리화나는 대마를 건조하여 만든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지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장애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다. 대마의 성분 중에서 향정신성 활성기능을 하는 THC(Delta-9-tetrahydrocannabinol)라는 성분은 1만 분의 1g으로도 환각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THC를 함유하고 있는 대마는 인체에 해가 클 뿐만 아니라, 대마에 있는 THC 성분은 그 제조 방법에 따라 THC 함유량의 정도가 다르게 되는데, 보통은 2-3%의 함량이고 많으면 5%에 이르기도 하며, 그 함량에 따라서 마리화나, 해시시, 해시시 오일 형태로 사용되고 해시시나 해시시 오일은 대마초보다 그 함량이 높다(조성권 외, 2007, 30).

또한 마리화나는 환각제로 분류된다. 마리화나는 신체적·심리적 의존성이나 내성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성 사용자에게는 심리적 의존성이 나타나고, 소량을 사용하면 약간의 도취감을 느끼거나 기분 좋은 상태가 되지만, 나중에는 수동적으로 되며 결국 아주 조용한 환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청각력이 둔화되고 일시적인 공포나 시공감각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 사회적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최은영, 2008, 28). 마리화나를 복용하면 중추억제로 혼수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청소년의 경우 마리화나의 남용은 더 센 강

력한 마약, 필로폰 등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는 '마약 남용의 관문'(Gate Drug) 역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APA, 2020, 565).

3. 환각제(Hallucinogens)

환각제는 감각, 지각, 사고의 흐름, 기분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다(Denis Richard, 2011, 92). 따라서 환각제는 현실의 왜곡과 같은 상태나 사고, 기분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여 약물로 인해 감각의 변화, 환상, 망상, 환취, 환시, 환촉 등을 발생시키는데, 환각제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시험 삼아 접근하지만 우울해지고 짜증 등의 불유쾌한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조성권 외, 2007, 21). 낮은 용량을 사용할 때는 몸과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해리성 마약이 되고, 높은 용량에서는 혼미 혼수를 일으키면서, 이 약물이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기 까지는 8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정신의존성과 정신분열증 망상과 같은 정신병을 유발한다(APA, 2020, 572). 대표적인 것으로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싸일로시빈(Psilocybin), 엑스터시(MDMA), 펜사이클리딘(PCP), 메스카린(Mescaline) 등이 있다.

4. 흡입제(Huffing)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경우는 흡입제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흡입제류에는 탄화수소류인 본드로 사용되는 아교, 페인트, 신나, 메니큐어 제거제, 드라이클리닝 용매, 톨루엔, 담배 라이터액, 가솔린, 아세톤, 나프탈렌옥산, 벤젠, 에테르, 크로로포름 등이 있고, 비탄화수소류로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질산아밀, 마취제인 아산화질소가 있다(김성이, 2002, 40-41). 흡입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드는 각종 접착제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접착물과 접착물을

녹여 주는 유기용제를 의미한다(이훈규, 이경재, 1996, 34). 어떤 물질을 접착시키려고 본드를 바르면, 접착물질은 남아서 접착을 시키고 유기용제는 휘발성이어서 증발하는데, 이때 증발하는 가스들은 독성 가스들이며, 이러한 유기용제 가스를 흡입하면 정신기능이 왜곡되기 때문에 머리에 플라스틱 봉지를 뒤집어쓰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APA, 2020, 591). 그런데 문제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정신기능을 왜곡시켜 감정, 인식, 행동에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본드 등의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것이고, 이때 발생되는 가스는 프로판 가스, 부탄 가스와 같은 기체형 가스와 신나,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가스로 구별되는데, 모두 정신기능을 왜곡시키는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이훈규, 이경재, 1996, 34).

흡입제의 일반적인 작용은 중추신경억제로 금단 증상은 약하지만 내성이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흡입제를 빠르게 흡입하면 방향감각의 상실, 자아통제 상실, 환각, 발작, 근육조절력 감소, 억압된 반응, 코피, 설사, 불쾌한 호흡, 수일간의 두통과 숙취가 나타나게 되는데, 본드나 가스의 경우 회복되는 기간이 길거나 정신이 되돌아오지 않는 등의 다른 약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파괴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보다도 매우 위험하다(최삼욱 외, 2013, 11). 또한 흡입제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앙신경체계의 영구적 손상 또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현저한 감소 뿐만 아니라, 간, 신장, 피, 척수를 손상시킴으로 인한 불규칙한 심장박동, 질식, 나중에는 흡입급사로 사망할 수 있다(APA, 2020, 589-590).

5. 아편제(Opium)

대표적 아편계 마약류에는 아편(Opium), 헤로인(Heroin), 모르핀(Morphine), 메사돈(Methadone)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아편계 마약류는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강력한 진통작용을 나타나며 의존성이 약물 중에서 가장 높고, 내성과 금단 증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김성이, 2006, 29). 이러한 아편계

마약류는 일시적으로는 불안, 긴장, 우울을 사라지게 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과 함께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특히 중추신경 억제효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강력한 약물의존이 형성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투약 후 12-36시간 동안은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APA, 2020, 596).

사용량을 증가시켜 주지 않으면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없고 금단증상이 나타나므로, 아편류계 약물 의존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수족이 떨리며 불쾌한 전율감, 복부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마약 의존자는 마약을 강박적으로 다시 남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금단과 중독 현상으로 인한 우울증은 자살 시도 및 자살로 이어진다(APA, 2020, 597). 특히 마약의 황제인 헤로인(Heroin)은 모르핀보다 10배 이상의 부작용과 위해성이 있으며 의존성이 높고 내성이 쉽게 생겨 만성중독과 금단현상이 생기지만 헤로인은 강력한 안정, 진통, 진정 효과가 있고 다행감을 주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김성이, 2006, 31). 그러나 헤로인에 중독되면 불안, 침울, 불면 등의 정신증상과 설사, 발한, 구토, 발열 등의 신체증상 부작용이 나타난다(Denis Richard, 2011, 58-59).

이와 함께 아편류에서 진해 작용으로서 탁월한 효과를 가지는 코데인(Codeine)은 '메틸 모르핀(Methyl Morphine)'이라고도 불리는 알카로이드의 일종으로 의학적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통증을 억제하는 등 진해 및 진정 작용이 탁월하고, 신체적 의존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남용하는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한다(대검찰청, 2019, 25).

6. 진정제(Sedative Hypnotics)

대표적인 진정제에는 바비튜레이트(Barbiturate)가 있는데, 세코날, 페노바비탈 등의 상품명을 가진 이러한 진정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로 신

경을 차분하게 하는 진정효과의 수면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긴장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약리학적으로는 심리적 의존, 내성, 신체적 의존을 일으키며 과다 복용시 호흡억제 효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공정원, 2001,18). 이러한 바비튜레이트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높이는 효과 때문에 수면촉진이나 경련억제를 위해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인데, 동시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중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은 경구투여를 하지만 정맥주사로도 사용하며, 적은 양을 복용하면 진정효과가 나타나지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최면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남용하는 사람은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며, 감정적 기복이 심해지고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장기간에 걸쳐 남용하는 경우에는 헤로인보다 더 심각한 의존성이 나타나며 환상과 과대망상,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금단증상도 매우 심각해서 남용자의 갑작스러운 사용 중단은 매우 위험하다(APA, 2020, 605).

이 약물의 중독 상태의 증상으로는 동작이 느리고 둔해지며 생각하기가 힘들어지고 기억력의 장애가 오며 말과 이해력이 느려지고 판단력에 장애가 오며 주위집중력이 떨어지고, 금단증상으로는 불안, 심한 쇠약감, 진땀, 불면 등의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식욕부진, 소화기 계통의 통증, 우울, 불쾌, 간질, 발작, 섬망, 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술과 진정제를 같이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은 서로의 작용을 상승시켜 진정제나 술의 위험도를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공정원, 2001, 18).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바비튜레이트를 사용하면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일으킬 수 있고, 다량의 바비튜레이트계 약물의 사용은 혼수와 사망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약물이 위험한 이유는 수면에 이르게 하는 양과 치사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바비튜레이트의 과량은 자살이나 우발적인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1/3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김성이, 2006, 33).

7. 신경안정제(Tranquillzers)

신경안정제(Tranquillzers)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긴장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골격근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 졸음을 유발한다(최은영, 2008, 27). 이 약물들은 수면제, 마취제, 항불안제로 사용되는데,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 프로포폴(Propofol)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신경 안정제는 순간적 피로회복과 숙면효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 효과가 있어서 의사처방 없이 사용하면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으로는 불면, 불안, 경련, 사망 등을 불러일으킨다(김성이, 2006, 33).

8. 자극제(Stimulants)

각성제라고도 불리는 대표적인 자극제의 약물로는 코카인, 크랙, 암페타민류, 메스암페타민류가 있는데, 이러한 자극제(Stimulants)는 인체에서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감각, 감정에 직접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환각제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혼미함과 피로감을 없앨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암페타민류는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분류되어 의학적으로는 알콜중독, 파킨스병, 우울증, 간질, 수면발작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공정원, 2001, 11). 그러나 이러한 자극제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메스암페타민류인 히로뽕인데, 통상 미국에서는 필로폰이나, 스피드(Speed, 액체형태) 또는 아이스(Ice, 고체형태)로 불리고, 일본에서는 히로뽕, 필리핀에서는 샤부(Shabu), 동남아시아에서는 야바(Yaba)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류는 인체의 부신피질 호르몬들과 유사한 성분으로서 직접적으로 말초신경에 작용하고, 간접적으로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방출을 증가시킨다(배성태, 2005, 30).

또한 자극제인 코카인(Cocaine)과 암페타민류는 중추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주어 전형적으로 안녕감, 자신감, 유쾌한 감정을 주게 하지만 신경체제와

혈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적은 양의 코카인(cocaine)과 암페타민류을 투여한 경우에 뇌의 각성 수준 상승, 공복감과 피로감의 감소, 행복감, 활력감, 자신감, 쾌감 등을 볼 수 있으나. 많은 양을 투여했을 때에는 경련이나 발작이 일어나고 호흡마비로 사망하기도 하며, 자살시도 등의 우울 증상은 금단기간 나타나는 심각한 증상이며 또한 의심이 많아지고 편집증적 상태를 보이며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APA, 2020, 617). 이렇게 암페타민류를 반복 남용하면 식욕이 줄어듦에 따라 영양실조나 체력 소모가 일어나고 코로 흡입하면 콧속에 염증과 조직괴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손쉽게 중독량에 이르기 때문에 정신분열과 유사한 '암페타민 정신병'을 발생시킨다(Denis Richard, 2011, 82). 또한 크랙(Crack)은 코카인(Cocaine)을 고체로 변형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것인데, 크랙(Crack)을 흡입하면 다량의 코카인(Cocaine)이 뇌에 빠르게 도달하게 하여 마약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중독되고,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코카인 정신병을 유발한다(김성이, 2006, 25).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인 필로폰(Philopon)은 우리에게는 '히로뽕'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아민(Amine)계의 대표적 마약인데, 일본에서 '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하여 잠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 주는 각성약물로서 판매하였고, '히로뽕'은 현재까지도 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어원적 유래는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희랍어 'Philopon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대검찰청, 2019, 33).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은 혈압 상승,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주의 집중력이 증가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황홀감을 느끼며, 피로감이 줄어들고, 고양감, 다행감, 흥분작용을 하며, 성적 쾌감이 증가하고, 사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각성작용이 있어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순식간에 고조시키고, 시각·청각·촉각 등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게 하지만, 그 약효가 없어지면 피로감, 무력감, 우울증, 자살 충동, 권태감 등이 엄습해 오고 정신병적 상태를 발생시킨다(APA, 2020, 622).

9. 담배(Tabacco)

담배에는 향정신성 효과가 있는 알칼로이드인 니코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주로 궐련 형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Denis Richard, 2011, 115). 흡연에 의해서 사람의 호흡기로부터 체내에 흡수되는 물질은 연기 속에 함유된 기체와 작은 입자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담배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은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이다(김성이, 2006, 18). 담배는 금단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 담배를 끊거나 줄인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2-3일 내에는 금단 증상이 정점을 이루면서 불안, 과민성, 집중곤란 등의 현상이 2-3주간 지속된다(APA, 2020, 63). 또한 니코틴의 양은 증가하면 역효과가 일어나 위의 운동을 줄이고 임산부의 경우에 태반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여 태아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니코틴의 양이 60mg이면 신경이 마비되어 사망하는데, 담배 한 개비 속에는 0.5mg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무력감, 두통, 진땀, 정신착란, 감각장애, 사망에 이르게 한다(김성이, 2006, 17).

10. 기타물질 : 신종 마약류들

신종 마약류의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새롭게 생성되었거나 과거에 있었어도 남용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널리 확산되는 마약류이다. 그 중 대표적인 마약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MDMA (3,4-Methylene dioxy-methamphetamine)

1914년 독일 의약품회사에서 식욕감퇴제로 최초 개발되어 사용된 MDMA는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인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에 시중유통이 금지되었음에도 1980년대 이후 환각제로 둔갑하여 세계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환각성 향정신성의약품이며, 엑스터시(Ecstacy)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1990년대 유럽의

클럽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이트클럽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MDMA는 국내에서는 '도리도리'라는 별칭이 있다(조성권외, 2007, 17). MDMA는 메트암페타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환각효과는 3배가량 강하고, 분말 형태도 있으나 주로 알약 형태로 된 MDMA를 섭취하며, 투약방법이 간편하고, 복용 시 신체 접촉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포옹마약(hug drug)'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복용 후 20분에서 60분 정도 경과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 극도의 흥분감을 일으키며, 약효는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지속되는데, 과다 복용 시 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한편, 심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대검찰청, 2019, 35).

2)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1938년 스위스 산도스 제약회사의 화학자 앨버트 호프만(Albert Hofmann)이 호밀 이삭에서 발생하는 맥각병에서 착안하여 합성한 환각제로,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이다(대검찰청, 2019, 37).

LSD의 L은 Lysergic acid diethylamide의 머리글자이며, S는 Sandos 제약회사의 머리글자이고, D는 LSD의 상품명인 Delysid의 머리글자로 명명된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1온스(약 28g)로 30만회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미량으로도 강력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며 통상 1회 복용량은 100-200 마이크로그램이며 효과는 8-10시간 지속되는데, LSD는 무색, 무취, 무미로서 보통은 분말로 제조되나, 때로는 정제, 캅셀제, 액체 형태로도 밀거래되며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극소량을 유당, 각설탕, 과자, 빵 등에 첨가하여 먹거나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어 씹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박건호, 2001, 15). 소량의 경구투여로도 효과가 나타날 만큼 효과가 매우 강력하며, 메스암페타민류인 필로폰의 약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투여시 오감을 왜곡시키는 환각효과를 경험하게 되며, 공포, 불안, 두려움

등의 환각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투여로 인한 뇌손상, 혈압 상승, 수전증 등의 부작용은 여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대검찰청, 2019, 37).

3) 날부핀(Nalbuphine)

날부핀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약물이었으나, 환각성이 있어 한때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에서 필로폰의 대용 약물로 남용되기도 하였고, '누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하 주사시 모르핀의 2.3배, 코데인의 8.3배에 이르는 진통효과를 보이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두통, 환각증상 등 정신 불안 증세와 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언어장애, 빈뇨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대검찰청, 2019, 38).

4) GHB(Gamma Hydroxy Butyrate)

GHB는 속칭 '물뽕',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 등으로 불리며, 최근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1960년에 GABA의 유사화합물을 찾던 프랑스 생화학자 H. M. Laborit에 의해 최초로 합성되었으며, 그 후 유럽에서 발작성 수면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 보조제나 수술용 마취제로서 소개되었으나, 마취제로서의 효능저하 및 예측 불가능한 마취 지속시간 때문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대검찰청, 2019, 46).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환각, 수면, 진정의 효과를 야기시키는 GHB는 경우에 따라서는 뇌사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유럽 및 미주에서 주로 생산된다.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타서 마시게 되면 10분에서 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시간에서 4시간 효과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GHB의 남용으로 혼수상태나 발작이 발생하며 메스암페타민과 함께 사용될 때는 그 발작의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술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히 확산되어 의식을 잃을 수 있게 되고 남용 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약물 성분이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닌다(배성태, 2005, 20-21).

5) 펜플루라민(Fenfluramine)

펜플루라민(Fenfluramine)은 중국, 태국 등지로부터 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약물이며, 중국산의 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일반인에게는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유통되고 있는데, 과다 복용 시 심한 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 등의 부작용이 있다(대검찰청, 2019, 39).

6) 케타민(Ketamine)

'스페셜 K'라고 불리는 케타민(Ketamine)은 동물의 마취제로 많이 쓰이며, 환각과 신체의 감각이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경험을 일으키고, 데이트 강간약물로 쓰이고 있으며, 케타민의 효과는 4시간에서 6시간동안 지속되는데, 기억 장애, 환각, 망상 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장기 혼수 상태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Denis Richard, 2011, 142).

7)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뇌에 작용하여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로 코데인과 화학적 구조는 비슷하며,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심박수 증가, 뇌손상, 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각 작용이 있어서 청소년층과 가정주부 사이에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단일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품에 복합제로만 유통하고 있다(대검찰청, 2019, 39).

8) 지페프롤(Zipeprol)

지페프롤은 환각제, 각성제, 중추신경안정제에 포함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이며 통상 진해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는데, 과다 복용 및 장기간 복용 시 환각작용 등을 일으키는 부작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었으며 장기간 남용을 하면 중독이 되고, 약효는 투약 후 24시간 후에 나타나며 약효는 6시간에서 12시간 지속되고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각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박건호, 2001, 20).

9) 크라톰(Kratom)

크라톰(Kratom)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로, 말레이시아에서는 'Biak-Biak'이라고 칭하며, 다 자라면 높이가 15미터에 이를 정도로 키가 큰 나무이고,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한 각성제로 그 잎을 씹거나 차 형태로 복용하거나 분말을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소량 복용 시 각성효과로 인해 말이 많아지고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나, 한꺼번에 다량을 복용하면 진정의 효과와 함께 구토, 현기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대검찰청, 2019, 43).

10)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Propofol)은 일명 연예인 마약, 우유주사로 알려져 있는 수면마취제인데, 병원에서 내시경검사, 성형수술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수면마취제로, 국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성형수술 등으로 프로포폴 투약자들 중 일부가 중독되어 남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위험성은 이러한 프로포폴이 살인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식품의약안전청, 2009, 8).

11) 야바(YABA)

야바는 1938년 독일에서 ‘Pervitin’이라는 제품명으로 최초 개발하여 시판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각성효과를 이용한 전투력 증대를 위해 독일군에 보급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에 야바 제조방법이 태국에 알려지게 되는데, 야바는 메트암페타민(30%), 카페인(60%), 코데인(10%)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대검찰청, 2019, 45). 정제나 캡슐형태로 포장되어 위장이 용이하고, 여러 환각물질이 복합 작용하여 환각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복용 시 도파민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격한 흥분을 느끼며 신경조직이 파괴되고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며, 흥분감,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대검찰청, 2019, 45).

제 3 절 청소년과 약물남용

1. 청소년의 개념적 정의

첫째, 청소년의 개념적 정의는 "adolescent"라는 영어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로 ‘성장하다(grow up)’ 혹은 ‘성숙하다(come to maturity)’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러한 "adolescent" 라는 청소년기에 대한 어원적 의미에서는 청소년기의 개념적 정의의 의미를 사춘기가 시작되고 육체적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생리학적 발달 측면에서 성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이인숙, 2002, 4).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개념적 정의를 본다면 청소년기를 "성장"과 "성숙"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생리학적 발달 측면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국내에서의 법률적 정의는 청소년의 대상을 법률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소년법상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가리키며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한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기준은 그 외에도 민법, 형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의 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개념은 단지 특정 연령의 구분만으로 범주화되어서는 청소년을 이해하기 어렵고,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보편적인 특성 이외에도 각각의 청소년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과 환경, 사회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청소년의 신체 및 사회 심리학적 특성

첫째,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변화로는 먼저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청소년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호르몬 분비의 피드백 체계는 사춘기가 시작될 때, 남자 청소년은 안드로겐(Androgen)과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과 같은 남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여자 청소년은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Progesiterone)과 같은 여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되며, 이러한 호르몬은 청소년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중돈 외, 2019, 254).

이와 함께 청소년기는 신장이 급격히 증가하며,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여자 청소년의 신장이 급등하는 시기는 10세에서 11세이고, 남자 청소년은 12세에서 13세로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또한 성인과 같은 생식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와 함께 남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이차적 성 특징(secondary sex characteristics)이 발달하게 된다(진혜경, 신지용, 1999, 16). 뿐만 아니라, 뇌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기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많이 느끼며, 발달과업상 발생하는 어려움과 불안정성 극복의 방법으로 음주와 흡연을 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뇌 영역 중 전반적인 동기(motivation)와 연결되는 보상체계와 충동조절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과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 편도체 부분은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최삼욱 외, 2013, 2).

따라서 청소년의 음주, 흡연, 약물 등의 섭취는 결과적으로는 신체적 발육 성장 저해 뿐만 아니라 뇌의 발달과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조절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나 다른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방식이 아닌 술이나 다른 약물을 통해 뇌의 보상체계(Reward system)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학적 특성으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들 수 있는데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인간의 전 생애 중에서 인간이 획득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신동업, 2014, 310).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따르는 위기감은 청소년 자신에게 부과된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역할에서 도피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위기감을 해소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병리적인 퇴행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고 각종 중독으로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발달되는 형식적 조작능력은 청소년의 인지적 활동범위를 현저히 확대한다. 그러나 형식적 조작능력의 부정적 영향은 청소년이 동시에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아중심성(egocentrism)을 부추긴다는데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자아중심성은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능력의 결함을 야기하고, 인지적 왜곡의 한 형태로써 작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상상의 청중'이나 '개인적 우화'로 표출된다(권중돈 외, 2019, 257). 그리고 이러한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의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이 일어나고,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와의 또래 활동, 진로의 문제, 자신의 가치관 정립,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의 활동에 몰두한다(김주일, 2006, 37).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얻게 하는 것이다.

3. 청소년 약물남용의 유형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 유형에 따라 약물남용의 유형을 7개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험 추구형(adventure-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약물을 복용하여 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흥분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흔히 모험적 행동을 즐기기 위해 본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장혜수, 2000, 20).

둘째, 평화 추구형(peace-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마음의 평화를 열망하지만, 자신들의 좌절감이나 공포 등의 격정적인 감정을 바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물복용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신경안정제, 수면제 및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를 주로 복용하게 된다(송광선, 2002, 8).

셋째, 교우관계 추구형(friendship-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용하며, 집단 내 동지애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과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대마초나 술을 가까이 하게 된다(윤흥희, 2004, 23).

넷째, 힘 추구형(power-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강력한 힘 또는 지위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약물남용 시 강력한 힘을 가진 것과 같은 착각을 제공하는 암페타민이나 코카인을 주로 섭취하게 된다(장혜수, 2000, 21).

다섯째, 미적 감각 추구형(aesthetic-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느끼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약물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려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주로 LSD나 메스카린 같은 환각제를 사용한다(윤흥희, 2004, 24).

여섯째, 성적 추구형(sex-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성적 충동을 약물복용으로 해소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억압된 성적욕구뿐 아니라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주로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약물을 사용한다(장혜수, 2000, 22).

일곱째, 초월명상 추구형(transcendence-seeking type)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의 느낌을 경험해 보고 싶은 열망이 있으며,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약물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이다(송광선, 2002, 9).

4.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요인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조아미, 2011, 90), 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약물남용의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물남용의 개인적 요인의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업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대부분이 학업 성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공정원, 2000, 26). 따라서 발달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자신의 신체 및 정서적 성장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 성적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된다(신윤정, 2004, 81).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자신과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일탈된 청소년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콜, 담배, 마약류 등의 흡입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약물남용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조아미, 2011, 90).

둘째,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가정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가정적 요인을 보면, 먼저 가정 내에서의 폭력 및 모방이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공정원, 2000, 16). 가정에서 부모가 술, 담배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빨리 술, 담배를 배우고, 부모들이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청소년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습관을 배우게 되며, 적대적인 감정 상태에서 부모의 약물 복용 습관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정이 비 남용 청소년의 가정보다 가족 중에서 우울증, 자살 기도 및 죽음, 범법행위, 만성질병 및 알콜 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가정환경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7, 18).

셋째, 약물남용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주변의 권유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 약물남용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송광선, 2002, 16).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 또래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 호기심에서 시작하거나 친한 친구들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권유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시작한 후에는 친구관계의 개선이나 유지를 위해 약물을 섭취하게 되므로,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학교 환경, 지역 사회 환경은 또래 친구들을 형성하는 곳이기에 청소년의 발

달 특성상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이정혁, 강동욱, 2018, 208).

5.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영향

청소년 발달 과업 상에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성장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발달 성장의 저해라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데(장혜수, 2001, 54),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및 지적 성장의 발달 저해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급격한 성장 발달과 함께 지적인 성장, 특히 추상적 사고영역이 성장하는 시기인데 반하여, 약물을 사용하여 왔던 청소년들은 특정한 약물이 두뇌에 영향을 끼치므로 뇌의 기능결여 및 학습부진의 반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수준으로 생각하고 개념화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지적 능력 및 사회성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박성수, 2017, 45).

둘째, 정서적 해결 능력의 발달 저해를 들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갈등과 긴장감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사회적 독립심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약물 복용은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자립과정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극복하기보다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물이 하나의 회피기제가 되어버린다(장혜수, 2001, 54). 그런데 청소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자립과 성숙을 시도하기 위한 도전으로서 선택한 약물 사용이 실제로는 그러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인 것이다.

셋째, 사회성 형성의 발달 저해를 들 수 있다. 자아정체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제인데, 이러한 발달과업에서 과제를 성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활

용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또래 친구와의 교제가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발달 과제가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홍윤정, 2008, 15). 약물은 그 속성상 우리들의 문제를 잊게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일시적이고 잘못된 행복감을 갖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존재가 누구인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자아 개념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성장 발달의 지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제 4 절 매슬로우의 욕구이론과 약물남용

1. 기본 욕구의 특성

매슬로우가 욕구이론에서 말하는 기본 욕구는 모두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본 욕구들은 강도에 따라 뚜렷한 단계로 배열된다(김정래, 2014, 52). 가장 아래에 있는 기본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부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욕구로서 이 욕구가 위협 당하면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욕구이다. 그리고 그 위의 2단계 욕구는 안전의 욕구인데, 이러한 안전의 욕구가 위협 당하면 인간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위의 욕구는 3단계 욕구인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이다. 인간은 소속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보다 한 단계 위의 욕구는 4단계 욕구인 자존감의 욕구이다. 자존감의 욕구가 실현되면 인간의 마지막 욕구 단계인 5단계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현되어지는 것이다(유상재, 2013, 30).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단계적이고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 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욕구의 성질 때문에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 이론을 위계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0). 만약에 우리가 안전의 욕구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모두 좌절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간을 지배하는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생리적 욕구는 안전의 욕구보다 강하고, 안전의 욕구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보다 강하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는 자아존중감의 욕구보다 강하고,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보다 강한 것이다.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에 비해서 덜 이기적인데, 왜냐하면 배고픔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하위 단계의 욕구와는 달리 욕구의 추구에는 필연적으로 타인이 포함되고 나아가 타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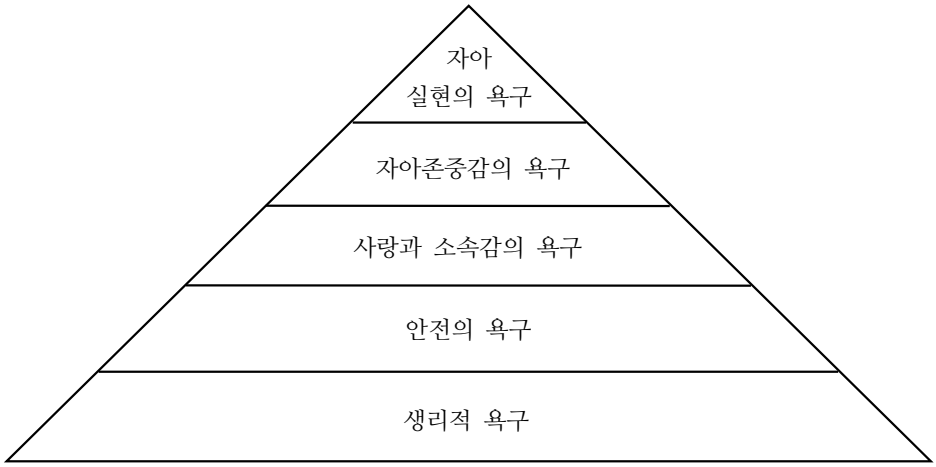
충족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와의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매슬로우는 특별히 자아실현의 욕구를 '메타 욕구'(meta needs)라고 부르고, 성장을 위한 욕구로서 상위의 욕구(higher needs)이지만, 다른 네 가지 욕구는 결핍 욕구(deficiency needs)로서 하위 욕구(lower needs)라 부르며, 상위 욕구와 하위 욕구와의 구분을 짓고 있다(김정래, 2014, 53). 이러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성장의 욕구는 네 가지의 하위 욕구가 결핍되지 않고 충분히 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욕구이다. 따라서 결핍 욕구로서의 기본 욕구는 한번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만 자아실현 욕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는 욕구이기 때문에 기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된 사람은 단순히 음식과 안전함 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랑과 존경, 인류애, 우정, 시민의식과 같은 자질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더 많으며, 더 나은 부모, 남편,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인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가장 발달된 사람인 것이다.

2. 기본 욕구의 5 단계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다섯 가지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를 향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유상재, 2013, 29), 이러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도표로 보면 다음 〔 표2-1 〕과 같다.

1) 생리적 욕구

일반적으로 동기이론의 출발점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이며,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가 된다(박진희, 김소아, 전인식, 2018, 302). 왜냐하면 이러한 결핍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생존의 욕구라고도 부른다. 그렇지만 항상 생리적 욕구가 생명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



〔 표2-1 〕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니다. 어떤 생리적 욕구와 그 욕구를 해소하려는 행위가 다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경로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비타민이나 단백질보다는 위안이나 의존할 대상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을 통해서도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생리적 욕구들이 서로 분리될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모든 욕구 중에서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력하고, 삶에서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욕구보다도 생리적 욕구에 따라서 삶의 욕구들이 동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며, 이것은 음식, 안전, 사랑, 존중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음식을 더 강하게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김정래, 2014, 53).

2)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을 안전의 욕구라고 하며, 이 욕구는 삶에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려는 욕구,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욕구,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가지려는 욕구 등으로 나타난다(유상재, 2013, 31). 이러한 안전의 욕구도 생리적 욕구보다는 덜하지만 인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구 속에서 사는 사람은 특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과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만족된 생리적 욕구를 가진 사람도 극단적이고 만성적으로 안전이 결핍된 상태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며, 이때의 안전은 신체적 안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안전도 포함하는 것이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0).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보통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건강하고 운이 좋은 성인들이라면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는 그 사회구성원들은 범죄자의 공격이나 살인 및 폭력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일부의 신경증 환자들은 불안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안전을 갈망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세상이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고 반응할 때가 많은데, 그들이 대재앙이 임박한 것처럼 행동하며 마치 모든 상황이 위급 상황인 것처럼 대처하는 이유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기 때문이고, 그러한 안전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자신이 의존할 수 있는 보호 장치나 사람 또는 조직을 찾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박진희, 김소아, 전인식, 2018, 302).

3)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는데, 사랑 욕구에는 애정을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가 포함되며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친구,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사회적인 욕구 즉, 사람들과의 호의적인 연대를 이루고

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김정래, 2014, 53). 이런 욕구를 느낀 사람들은 사랑의 인간관계를 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느끼기 위하여 어떤 집단이나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왜냐하면 관계의 단절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그 사람을 온통 우울과 좌절의 감정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욕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고 따뜻한 유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이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0). 자신이 경멸받게 되는 것,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와 이별하는 것,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자아존중감의 욕구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 자부심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아존중감의 욕구라고 부르고(박진희, 김소희, 전인식, 2018, 303), 이런 욕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취감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독립성과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타인에 대하여는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을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서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지만,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이나 무력함을 느낀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1).

5) 자아실현의 욕구

앞서 언급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한 새로운 불만족과 불안감을 종종 느낄 수 있다. 스스

로에 대해서 평온함을 느끼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충족감을 느끼며,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에 진실해져야 하는데, 매슬로우는 이것을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부른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1).

이러한 자아실현의 욕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욕구 즉,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욕구이며, 자신의 잠재성을 실현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며, 이런 성향은 자신의 고유함에 좀 더 근접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박진희, 김소희, 전인식, 2018, 303). 그러나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3. 욕구이론과 약물남용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누고,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에서 상위 단계를 향해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그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유상재, 2013, 30), 그 중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기본 욕구의 4단계에 해당한다. 인간 욕구의 5단계 중 1단계는 바로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이다. 즉, 잠잘 곳, 먹을 것, 마실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욕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김정래, 2014, 53).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을 개발하려면 먼저 이러한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위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줄 주거지가 필요한 것이다.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2단계인 안전의 욕구가 나타난다. 이 욕구는 근본적으로 신체적 및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집단 속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즉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생기

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소속 집단 속에서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4번째 단계의 욕구가 바로 내적으로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려는 자아존중감의 욕구인 것이다(배시화, 황정현, 2015, 221). 이것을 자아존중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욕구는 앞의 3가지 욕구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 되었을 때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실현 되어야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존중감까지 그 욕구가 성장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삶의 조화를 알게 되고 그 조화 속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하며 사회에 무엇인가를 기여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욕구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이다. 결국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길인 자아존중감은 이렇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모두 채워진 후에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물남용의 문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 갈 수 있는 능력인 4단계의 욕구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전에 1단계 욕구인 생명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의 결핍, 2단계 욕구인 늘 불안한 환경 속에 놓인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안전의 욕구의 결핍, 3단계 욕구인 가정이나 학교 등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해서 오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청소년들이 찾는 손쉬운 대안이며, 그 욕구의 결핍을 약물과 같은 물질로 채우려 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의존 현상이 약물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물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요구, 그리고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선결 과제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10명의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접을 통해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이 시사하는 점은 바로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약물남용자들이 욕구의 결핍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욕구의 결핍의 대부분이 안전의 욕구의 결핍이었다. 가정 속에서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불안감이 청소년기를 통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같이 그런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과 동지애를 느끼면서 약물 등과 같은 불안감의 대체 물질을 통해 결핍된 욕구를 채우려 하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기심으로 시작된 약물이 소속감을 충족해 주는 강한 대체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바로 그 약물의 특성상 점점 더 약물을 찾게 만드는 내성과 금단 증상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자 가출, 퇴학.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다른 어떤 발달 시기보다도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발달 과업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이나 불안감이 가장 극대화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 과업상 부과되어지는 불안감과 함께 가정에서 공급받지 못한 안전에 대한 욕구의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 등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불안감이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약물이 주는 일시적 편안함은 청소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사이도 없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약물에 대한 강한 집착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약물남용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5명과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겪었던 약물남용 회복 중에 있는 성인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약물남용 청소년은 자기 성찰이 어려워 면접을 통해 약물남용에 관한 심층적인 경험을 진술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을 면접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기 성찰 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성인 약물 중독자의 경험을 인터뷰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약물남용 경험을 통해 그 원인과 유형을 살펴본 연구는 반구조화 질문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중요한 진술에 대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융통성 있게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고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경험을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자 하여 장소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가장 편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뷰 장소가 안산, 퇴계원, 일산, 서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 부록 1 〉에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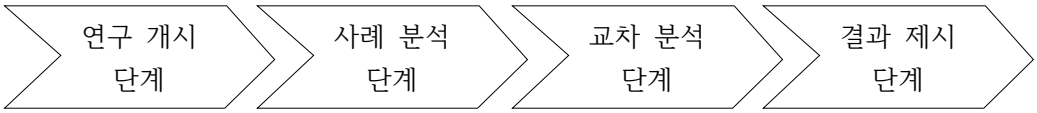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청소년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론적인 접근으로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CQR 질적 연구법 (CQR : Consensual Quality Research)을 사용하였다. CQR 질적 연구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참여자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이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사례의 맥락을 기초로 하며, 귀납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CQR 질적 연구법은 연구자의 단독 연구 외에 복수의 연구 분석팀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자와의 연구팀의 합의과정이 연구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독단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의 연구 분석팀과 함께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는데, 이러한 모든 합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을 행하는 것이 CQR 질적 연구법이 가지는 주된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약물 중독 경험이 있고, 현장 실천 분야에서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 오랜 기간 회복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 2명과 연구 분석팀을 구성하였고, 월 1회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모여 1시간 정도에 걸쳐 분석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론 분야에서는 오랜 기간 중독 분야에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사 학위를 지닌 중독 전문가의 감수를 총 3회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분석

연구대상의 조건에 해당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CQR 질적 연구법(CQR: Consensual Quality Research)은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연구 절차를 도표로 보면 다음 〔 표 3-1 〕과 같다.



〔 표 3-1 〕 CQR의 4단계 연구절차 흐름도

첫째, 연구 개시 단계이다. 연구 개시 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한다. 연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후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면서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작성하는 과정이 연구 개시과정이다(이희윤, 2017, 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면접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2차례 이상 면접이 아닌 식사 및 담화와 같은 가벼운 만남을 가졌고, 연구 참여자가 심층 면접에 대한 결심이 섰을 때 면접을 가졌다. 면접은 심층 구두 면접과 코로나로 인한 서면 면접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을 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면접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요약하여 자료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 녹음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밝히고 동의를 얻어서 연구 면접을 실시하였

다. 참여자의 면접시간은 약 4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고, 심층 면접은 필요에 따라 1-2회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질문지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면접 후 참여자에 대한 소감을 물어보고 면접을 정리하였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모든 사례에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모든 과정에서 사례 번호로 처리되었다. 자료 준비과정에서는 심층 면접내용을 녹음한 mp3 화일을 풀어 축어록을 만들었으며, 1명당 소요된 축어록 내용의 분량은 A4용지 10 페이지 내외에 해당되었다.

둘째, 사례 분석 단계이다. 사례 분석 단계는 면접에서 생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의 영역을 분류하고 개발하여 영역을 조직화하며, 조직화한 후에는 각 사례별로 범주를 도출하고 감수자와 연구팀의 합의와 검토를 통해 영역과 범주를 확정하는 단계이다(이희윤, 2017, 22).

본 연구에서는 내용 영역을 분류할 때는 연구자가 축어록 자료를 분석하면서 분류하였고, 분류한 이후에 연구자 외에 2명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분석팀과 함께 연구자가 작업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영역을 재분류하였다. 연구 분석팀은 영역을 조직화하고, 영역의 개념을 요약하여 추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감수자는 합의된 영역과 범주와 함께 전체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감수자의 피드백을 받은 후 연구 분석팀은 회의를 통하여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영역은 조직화된 이후에도 요약과 교차분석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정이 되었으며, 모든 사례의 영역과 요약 반응을 구성한 후,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연구 분석팀은 감수자의 지적에 대해 토의하여, 감수자의 의견에 따라 영역이나 요약 반응을 수정하였고, 그 수정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팀은 영역이나 요약 반응을 재정리하였다.

셋째, 교차 분석 단계이다. 교차 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개별 사례들의 영역 안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범주가 표본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어떤 것이 대표성을 갖는지 살펴보면서, 감수자의 검토를 거쳐 연구 분석팀은 표본

의 대표성은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나뉘며, 모든 사례나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를 '일반적'이라고 하며, 전체 사례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를 '전형적'이라고 하며, 2사례 이상 혹은 전형적 사례의 1/2 미만에 해당되는 사례를 '변동적'이라고 분류하였다(이희윤, 2017, 23).

본 연구에서는 CQR 질적 연구법에 따라 표본의 대표성을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나뉘고, 10-9개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하며, 5-8개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전형적'이라고 하며, 4개 사례 이하에 해당되는 것을 '변동적'이라고 분류하였다.

넷째, 결과 제시 단계이다. 결과 제시의 단계는 교차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와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으로 면접 자료의 반영성을 살펴본다. 감수자 및 연구 분석팀의 피드백 과정이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분석결과의 수정과 보완이 반복된다(이희윤, 2017, 23).

본 연구에서는 CQR 질적 연구법에 따라 감수자와 연구 분석팀의 피드백 과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결과로써,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약물 전개 과정을 제시하였고,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유형을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약물남용의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단약 요인 또한 생리적 욕구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로 제시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는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엄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윤명숙, 채완순, 2010, 277), 질적 연구가 실증적인 근거, 일반화 가능성, 편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정해진 틀에 맞는 표준화된 자료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이 의미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으므로 과학적 엄격성과 관련된 양적 연구방법들인 무작위 표본추출, 일반화 가능성, 신뢰도 및 타당도 측정 등을 질적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 하는 것이며 그 연구 과정에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좋은 관계형성은 질적 연구의 자료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로 연구 참여자의 진실한 체험적 기술이 연구자와의 관계형성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질 좋은 자료의 수집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연구의 신뢰성의 여부, 즉, 연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한 여부이고, 질적 연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공정하고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연구대상의 경험을 가능한 정확하게 그려내는 연구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Mason(1996)이 제시한 신뢰성(reliability) 및 정확성(accuracy), 타당성(validity),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였다(Mason, 1996, 228-24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reliability)의 확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8년 동안 약물남용 청소년들과의 숙식을 통한 가정공동체 경험과 매년 70여명의 위기청소년과의 상담 및 약물 중독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으로 약물남용 청소년들과의 공감력을 확보하여 본 연구시 심층 면접을 하는 동안 심도 깊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심층 면접 외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장기간의 면접 및 개입, 지속적인 관찰, 연구 과정에서의 참여자 확인 과정 및 동료 확인 과정 등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 연구 과정에 대해 검토를 받음으로써 양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되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실천가로 구성된 연구 분석팀에게 자료를 제시하여 분석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박사 학위를 소유한 이론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아 본 연구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다.

둘째, 정확성(accuracy)의 확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과 과정 절차에 따른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방법론 선택, 자료수집 과정, 자료 분석 절차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왜냐하면 정확성(accuracy)이란 연구를 반복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구자가 사용한 원 자료와 결정과정 절차에 따라 다른 연구자가 같은 연구를 시도했을 때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단계의 연구 과정 단계를 절차별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인 연구 개시 단계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분석팀을 구성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후 연구 참여자와 면접을 실시하면서 심층 면접내용을 녹취하여 축어록을 A4 용지 10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였으며, 2단계인 사례 분석 단계는 축어록으로 기록된 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의 영역을 분류하고 영역을 조직화한 후에는 각 사례별로 범주를 도출하

고 감수자와 연구 분석팀과의 합의와 검토를 통해 영역과 범주를 확정하였다. 또한 3단계인 교차 분석 단계에서는 모든 개별 사례들의 영역 안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를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나뉘었고, 마지막 4단계인 결과제시의 단계에서는 교차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수자 및 연구 분석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하여 의견이 합치될 때 까지 분석결과의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여 사례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타당성(validity)의 확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적합한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 청소년기에 약물남용 경험이 있는 약물남용 경험자를 선정하였고, 10명의 약물남용 경험자의 생생한 체험적 진술을 통해 양질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자료로부터 연구의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또한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회복과정에 있는 마약 중독 재활 공동체에서 재활 중인 약물남용 경험자들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재연가능성은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써 연구결과가 그 연구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도 적합한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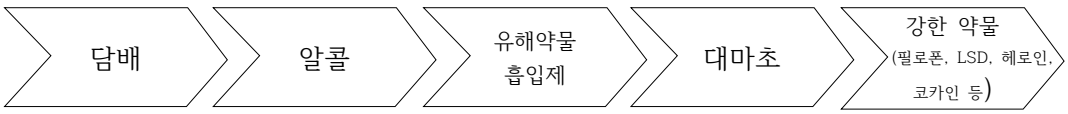
넷째,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의 확보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특성이 믿을만하고 실제적이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와의 주관적인 실재와 객관적인 실재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질적 연구의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은 앞서 언급한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의 기준이 달성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 정확성, 타당성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중단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과정

1.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과정

청소년기에 약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감기약이나 본드, 라카와 같은 유해 약물 흡입제로 약물 흡입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흡입제 등의 약물을 흡입하기 전에 알콜과 담배를 먼저 섭취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약물 단계별 전개 과정을 도표로 보면 다음 〔표 4-1 〕 과 같다.



〔표 4-1 〕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 전개 과정 흐름도**

담배 및 알콜로 시작하여 최초로 약물을 섭취한 연령의 평균은 13.7세로 나타났고, 이와 함께 대마초는 본격적인 약물로 진입하는 관문 약물임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대마초를 사용한 약물남용 경험자들은 다른 좀 더 강한 약물로 발전했지만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은 약물남용 경험자들은 마약류 사용을 멈춘 것으로 연구 결과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자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남용 과정을 도표로 보면 다음의 〔표 4-2 〕와 같다.

〔표 4-2 〕 청소년의 약물남용 시작 연령과 과정

	약물 시작 나이	시작약물 (술, 담배 제외)	약물남용 과정 및 특이 사항	술, 담배 (시작 나이)
1	16세	러미널	러미널(16세) - 필로폰(19세)	술(15세) 담배(15세)
2	16세	감기약	감기약(16세) - 대마초(19세) - 필로폰(21세)-LSD,엑스터시 등 다양한 약물(21세)	술(15세) 담배(21세)
3	10세	본드	본드(10세) - 러미날,옥타리돈,루비킹(14세) - 대마초(15세)	술(17세) 담배(13세)
4	16세	세코날	세코날(16세) - 대마초(17세) - 필로폰(19세)	술(안 함) 담배(13세)
5	14세	대마초	대마초(14세) - 감기약(15세) - 머쉬룸(16세) - LSD (17세)	술(14세) 담배(14세)
6	16세	라카	라카를 1개월만 하고 중단	술(15세) 담배(15세)
7	16세	라카	라카(16세) - 라카(17세에 중단)	술(안 함) 담배(10세)
8	15세	라카	라카(15세) - 라카(17세에 중단)	술(15세) 담배(14세)
9	14세	본드	본드(14세) - 부탄가스(15세)	술(20세) 담배(15세)
10	17세	본드	본드(17세)	술(안 함) 담배(17세)

1) 사례 1번 전개 과정

“술, 담배를 중학교 2학년 때 시작 했고 러미날을 중학교 3학년에 했어요. 그리고 필로폰을 저는 19살에 했어요. 저를 많이 이뻐했던 선배 형이 제가 있는 호텔에 와서 해 줬는데 새벽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 사례 2번 전개 과정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감기약 같은 걸 시작했거든요... 대마초는 열일곱살 때 배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옳고 그름이 머리에 잘 안 서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는데, 해 봤는데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깨진 것 같아요... ‘괜찮구나’ ... ‘나보다 많이 한 사람도 멀쩡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다른 약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죠. 스물 하나에 필로폰을 배우고. 그 이후로 마흔 정도 때까지 약을 했으니까 교도소를 여덟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국내에서 통용되는 마약을 다 해 본거 같아요. 액스터시도 그렇고 코카인도 그렇고 엘에스디.. 다 해본 것 같아요..”

3) 사례 3번 전개 과정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미군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뭘 하더라구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비닐 안에 노란 액체가 뿌려져 있고 본드 갑이 있고 그걸 흉내 내서 따라 해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처음으로 해 본 거예요... 처음에는 미군들이 하고 남은 걸 다 가고 나서 코에다 대 보니까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이 확 바뀌더라구요.. 나중에 문방구에서 사다가 비닐에다 넣고 해 봤죠.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러미날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약을 친구들이랑 형들을 통해서 얻었어요. 러미날을 배우면서 그 때 본드를 끊었어요. 러미날을 매일 먹다가 러미날도 종류가 그 당시에는 엄청 많았어요. 러미날, 옥타리돈, 루비킹... 러미날을 먹고 옥타리돈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러미날을 먹으면 몸이 굳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이 좀 굳어요. 그리고 로보트처럼 걷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옥타리돈을 먹으면 옥타리돈은 기관지약인데 몸을 좀 부드럽게 해줘요. 뻣뻣하게 로보트처럼 굳었던 몸이 다 풀어지고.... 나중에 형들 때문에 대마초를 배운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교도소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풀데기가 뭐라고....”

4) 사례 4번 전개 과정

“저는 이제 16살 때 약물을 하게 됐죠. 16살 때 약물을 시작했던 동기는 그 전에는 담배를 폈는데 담배는 이제 약물이라기보다는.... 담배 말고 ‘세꼬날’이라고 하는 빨갛게 생긴 그런 약을 제가 먹게 됐죠. 열여섯에 ‘세꼬날’을 시작 했고, 계속 먹다 보니까 열일곱에 대마초를 얻어서 피게 되었죠. 대마초를 하다가 또 필로폰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죠. 16살부터 47살까지 30년간 약을 했어요... 삼십년 동안 쉬지 않고 뭐 중간 중간 매일매일은 아니라도 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마약 전과가 47살 때 7개가 됐어요. 마약 전과가 일곱 개가 되었을 때 저의 아내가 직접 자기 손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주치료감호소’ 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약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5) 사례 5번 전개 과정

“열네 살에 제가 처음으로 핀 거예요. 어 피고 싶은 이유는... 더 멋있어 보이려고 제가 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술이랑 해 봤는데 멋있는 형, 누나들이 스토리를 나누고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열네 살에 술을 하면서 ‘나의 간담은 좀 약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게 대마초였었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와... 좀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돈을 훔칠 수 없는 때에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모조리 훔쳤죠... 감기약은 환각 현상이 많이 일어났지만 너무 정신이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는 머쉬룸, LSD등을 했는데, 저는 주사기를 몸에 대는 거는 싫어서 코카인이나 헤로인은 안했어요.”

6) 사례 6번 전개 과정

“저는 친한 친구들이 같이 라카를 하자고 해서 중3때 라카를 1달간 매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카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같이 끊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카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술을 먹는 거죠...”

7) 사례 7번 전개 과정

“저는 중3때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런데 중3때 하다가 선배들한테 걸려서 ‘선배들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하다가... 중3 후반 때부터 또 하다가... 고1 때 끊었어요. 선배들한테 자꾸 걸릴 것만 같아서요. 선배 형들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우리 누나랑 친한 선배들이어서 제가 라카 하면 저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았어요...”

8) 사례 8번 전개 과정

“중2 후반부터 했어요. 예전에 라카를 나쁘게 보는 친구들이 저희 중에 있었던거죠. 걔네들이 계속 끊으라고 했어요. 너희랑 못 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끊어보려고 하다가 안될 때도 있었는데... 아이들 몰래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애들이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끊으려고 하게 됐고... 제 자신도 뭔가 이상해진 것 같고... 좀 바보가 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중독자 같고... 그래서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머리도 안 좋아진 것 같고...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 옆 동네에서 많이 하다가 정신병원에 2번 간 애가 있어요...그 아이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던 차에 막 차타면서 훅하다가 죽은 애가 동네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끊기로 했어요.”

9) 사례 9번 전개 과정

“열세 살에서 열네 살로 넘어가기 그쯤에서 본드를 시작했는데, 그 때 이후로부터는 거의 집 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본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밖에 가출해서 본드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탄가스로 넘어가면서는 가스를 마시려고 자주 가출을 했어요.”

10) 사례 10번 전개 과정

“열일곱 살에 후배가 권해서 본드를 했어요. 그때 이후 저는 계속 본드만 했어요.”

2.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청소년기에 약물을 경험한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최초로 마약류를 흡입한 성인 약물 경험자와는 달리 감기약이나 본드, 라카와 같은 유해 약물로 마약류의 약물 흡입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마약류의 약물을 흡입하기 전에 알코올과 담배를 먼저 섭취하였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사용한 청소년들은 다른 좀 더 강한 약물로 발전했지만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마약류 사용을 멈춘 결과를 통해 대마초는 본격적인 마약류 약물로 진입하는 관문 약물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특별히 술과 담배를 포함하여 청소년기에 약물을 남용한 연구대상자의 최초 약물 경험 나이의 평균 연령이 13.7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예방 교육은 13.7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 2 절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유형

1.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유형

청소년 시기에 약물을 남용하는 유형으로는 평화 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모험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 성적 추구형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화 추구형과 교우관계 추구형이 각각 3명씩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모험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고, 성적 추구형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을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는데, 정리된 사항을 도표로 보면 다음 〔표 4-3 〕과 같다.

1) 평화 추구형 (peace-seeking type)

"저의 집은 늘 불안했어요. 싸우거나 그러지는 안았는데, 아버지는 늘 술을 먹었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으셨고, 엄마는 늘 돈을 버시느라고 바빴고 그나마 집에 오시면 형만 이뻐했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형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늘 어린 시절 불안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해본 필로폰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를 느끼게 해 줬어요. '천국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 사례 1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맞았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평소 때에는 너무도 순한데 갑자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저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도소에 왔냐'고 할 정도로 저는 순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대마초는 약이에

요. 저는 대마초를 안 피우면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마초를 피워요.. 특히 산 속에서 피는 걸 좋아하는데, 물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럼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약이거든요.."
-사례 3번

"저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싫었어요. 제가 처음 본드를 했을 때에는 집이 가난해 졌는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불안감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약물을 하면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하나에만 몰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들, 내가 이제 앞으로 겪을 아픔들. 지금 내가 현재 처한 상황, 가정환경.... 그런 거가 싹 잊어버리니까 그런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 몰입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웃고 싶을 때는 엄청나게 웃고 울고 싶을 때에는 엄청나게 울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후련한 감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쏟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
- 사례 9번

2) 교우관계 추구형 (friendship-seeking type)

"저는 친구랑 있을 때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도 술 먹기가 싫어도 '야, 술 먹으러 가자'하면 술을 먹게 되고, 또 그 친구가 먹기 싫어도 내가 먹고 싶으면 '야, 술 먹으러 가자' 하면 친구가 따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을 먹게 되는거 같아요.. 라카도 그랬어요.. 친구가 '하자'고 하니까 하고... 친구가 매일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이 라카하면 안 놀겠다고 하니까 라카를 끊었죠.."
- 6번 사례

〔표 4-3 〕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의 유형

영역	범주		사례
생리적 욕구	성적 추구형 (sex-seeking type)	성적 충동 욕구를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
안전의 욕구	평화 추구형 (peace-seeking type)	불안한 감정을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1번, 3번, 9번.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교우관계 추구형 (friendship-seeking type)	외로움과 동지애적 욕구를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6번, 7번, 10번.
자아존중감의 욕구	힘 추구형 (power-seeking type)	강력한 힘과 지위에 대한 욕구를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4번
	미적 감각 추구형 (aesthetic-seeking type)	미에 대한 욕구를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2번
	모험 추구형 (adventure-seeking type)	욕구의 좌절을 모험적 행동으로 대체함	8번
자아실현의 욕구	초월명상 추구형 (transcendence-seeking type)	초월적 느낌을 향한 욕구를 약물남용으로 대체함	5번

“친한 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알아봐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아보고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도 그래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엔 목이 아프고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친구가 계속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와 이거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 사례 7번

“동네에 사는 후배가 맨 처음 본드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드를 안 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드를 하는 친구들만 남더라고요.”
- 사례 10번

3) 힘 추구형 (power-seeking type)

“저는 인정욕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아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부모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어도 내가 인정받아야 걔네들을 이길 수 있고, 걔네 틈에서 내가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욕이 있는데도 그것을 버릴 수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사례 4번

4) 미적 감각 추구형 (aesthetic-seeking type)

“군대 나와서는 패션모델을 했어요. 열아홉 살에 군대를 가서 제대를 했더니 신문에서 패션 모델 광고가 있어서 오디션을 보고 어린 나이에 모델 활동을 하면서 대마초를 알게 되고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물을 하는 게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어요.”
- 사례 2번

5) 모험 추구형 (adventure-seeking type)

“제가 초등학교 때 까지 공부를 잘 했는데... 중학교에 가니까 공부가 틀어졌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통해 라카를 배우게 됐는데... 라카를 하면 ... 막 제 생각이 뭔가 이상해지고.... 막 상상이 되고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라카만 하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져가지고... 아 진짜... 옛날에 라카하고 오토바이 훔쳐서 타고 다시 가져다놓고 그랬어요.... 좀 어지러워가지고

라카하고 오토바이 타면은 막 게임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라카를 하는 게 상상하는 대로 되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했어요."
- 사례 8번

6) 초월명상 추구형 (transcendence-seeking type)

"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어서 영적인 세상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근데 특히 대마초보다 LSD를 먹었을 때 그게 되게 강했어요. '와 어떤 그게? 하늘을 가려는 느낌? 하늘을....' 그런데 대마초 필 때는 하늘을 가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았고 제가 생각을 안 해도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마초를 피면 그냥 저절로 생각을 해줘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생각이 들어와요... 중략 ...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나는 영웅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영웅이 되고 싶었거든요..."
- 사례 5번

2.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 시기에 약물을 남용하는 유형으로는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성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화 추구형과 교우관계 추구형이 각각 3명씩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모험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고, 성적 추구형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모두 욕구의 결핍을 약물을 통해 채우려는 것을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매슬로우의 욕구의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장 원초적인 욕구 단계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는 것,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생리적 욕구의 1단계에 해당하는 성적 추구형에는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 성에 대한 허용적 문화가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는 성의 결핍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약물남용을 하는 것이 화자될 수 있는 개방적 사회는 아니라는 점도 본 연구 분석 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2단계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 평화 추구형은 마음의 평화를 열망하지만, 자신들의 좌절감이나 공포 등의 격정적인 감정을 바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약물복용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데, 1번, 3번, 9번 유형이 이 유형에 속했으며, 가정이나 학교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정감과 평화의 마음을 약물을 통해서 얻었다. 이들은 약물보다 자신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약물을 찾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한 느낌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의 욕구인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교우관계 추구형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며, 또한 사귄 또래 친구와의 동지애적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6번, 7번, 10번 유형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친구가 하자'고 해서 했고, 친구랑 같이 있으려고 약물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들은 약물 없이 다른 것들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단계인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타인의 인정과 함께 자기 자신의 내면적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채우기 위한 욕구로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유니크한 느낌으로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모험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례 4번인 힘 추구형은 강력한 힘 또는 지위에 대한 욕구을 채우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사례 2번인 미적 감각 추구형은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느끼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면서, 약물을 사용하는 자신의 존재를

유니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험 추구형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 약물을 복용하여 내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흥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사례 8번 역시 초등학교 때까지 잘 했던 공부가 중학교 때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던 욕구의 좌절을 모험적 행동으로 대체했는데, 그것이 약물남용이었다. 약물남용한 후에 오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되어지는 재미난 경험이 좋아서 약물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사례 5번인 초월명상 추구형은 초월적 존재를 느끼고 싶은 욕구,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로 인해 약물을 사용하였으며, 약물을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하늘에 있는 듯한 느낌, 초월적 존재가 된 영웅적 느낌이 좋아서 계속 약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약물남용 유형 중에서 많은 부분이 평화 추구형과 교우관계 추구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약물남용의 유형에서 평화 추구형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된 감정을 통해 느끼려는 안전의 욕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의 욕구를 약물로 대체하며, 교우관계 추구형은 약물을 통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고, 힘 추구형과 미적 감각 추구형, 모험 추구형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느끼게 되는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약물을 통해 대체하려고 하며, 초월명상 추구형은 자신의 존재를 실현한 존재인 신과 같은 존재,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5단계가 서로 위계적으로 놓여 있어서 1단계가 채워져야 다음 2단계로 진행하고, 2단계가 채워져야 3단계로 진행하며 3단계가 채워져야 4단계로 진행하고, 마지막 5단계는 이러한 4단계의 모든 욕구들이 충족된 사람이 갖게 되는 성장의 욕구라고 하였다(김정래, 2014, 54). 그러나 약물남용자들은 약물이 주는 환각으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를 약물로 채워진다고 여기게 되는 현실과는 왜곡된 허상의 욕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매슬로우의 욕구이론과 약물남용 청소년의 유형과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일반적, 전형적, 변동적으로 나뉘며, 10-9개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하며, 5-8개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을 '전형적'이라고 하며, 4개의 사례 이하에 해당되는 것을 '변동적'이라고 분류하여, 악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1.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개인적 요인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청소년 시기에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대부분이 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에 달려 있게 된다. 그런데 약물남용 청소년은 권위적이고 경쟁적인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자신과 같이 가출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일탈된 청소년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호기심 및 또래 친구들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약물남용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 〔표 4-4 〕와 같다.

1) 학업

가) 공부하기가 싫음

"집에 가면 맨날 공부하라고 뭐라고 하고 저를 속박하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공부를 하기 싫었고, 딱히 뜻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계속 저한테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집이 싫었어요."
- 사례 9번

나) 학업을 중단함

“제가 고3에 자퇴를 했어요. 한 5주 다니다가. 그렇게 자퇴를 하고나서 친구를 많이 잃어버렸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를 다녔었는데, 그 중고등부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왕따를 당하고 나왔죠.”
- 사례 4번

〔표 4-4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개인적 요인

	영역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학업	공부하기가 싫음	일반적(9)
		학업을 중단함(자퇴)	변동적(4)
2	음주	술을 자주 마심	전형적(7)
3	흡연	담배를 자주 피움	일반적(10)
4	가출	집에 가지 않음	전형적(8)
5	낮은 자존감	인정받고 싶음	전형적(6)
6	범죄	소년원에 감	전형적(5)
7	환각	환각현상을 느낌	전형적(9)
8	불안	편한 곳을 찾기 위해 약을 함	전형적(8)
9	호기심	호기심으로 약을 함	일반적(10)

2) 음주

“술은 중2 때부터 먹었어요... 라카를 끊기로 한 다음부터는 라카를 하고 싶을 때는 라카 대신에 술을 먹죠. 술을 엄청 먹었죠. 그러다가 계속 술을 먹고 사고를 쳤어요. ”
- 사례 8번

3) 흡연

“담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제가 담배 피고 그럴 때 아버지가 때리고 그런 거는 있었고... 가끔 억울할 때도 있었어요. 집을 늦게 들어간다고... 머리를 한 대 맞아서 피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빼고는 아버지랑 사이는 좋았어요,”
- 사례 6번

4) 가출

“무엇인가를 하는 기간이 있으면 덜 해요... 그런데 학원이랑 학교라는 그런 곳에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고 매일 했으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일주일에 1번 정도만 했는데, 가출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약물을 매일 한 거예요.”
- 사례 9번

5) 낮은 자존감

“두려움을 잊으려고 세꼬날을 했어요. 약을 하면서 이제 세꼬날을 계속 먹다보니까 좀 창피함도 좀 멀리 가는 것 같고... 취해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두

려움도 좀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 약을 사용하게 되었죠."
- 사례 4번

6) 범죄

"고 3때 소년원을 들락날락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소년원을 약물 때문에 갔는데, 그 때는 3명이서 같이 대마초 피고 강도 상해를 했어요. TV나 영화 보고 흉내 내느라고 약 먹고요. 근데 맞은 편 건물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신고해서 잡혔어요."
- 사례 3번

7) 환각

"2시간 정도 하면은 라카에 엄청 취하거든요. 한번은 낡은 건물 옥상에서 하다가 취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시장에서 수박이 나한테 말을 걸어서, 수박을 들어서 부셔버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말리고, 어떤 때는 귀신을 본 적도 있고... 이게 한 봉지만 해도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봉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한 봉지 끝나면 무조건 빨리 다른 봉지 짜서, '빨리 해야지'... 그런 느낌이 계속 되니까... 한 번은 라카를 하고 있는데, 라카를 안하는 친구들이 와서 라카 통을 던졌어요. 그래서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니고..."
- 사례 8번

8) 불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성격은, 되게 얌전하고 되게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화를 내면 바뀌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서 그 불안이 더 강해졌죠. 열네 살 때 어느 날 부모

님이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 대마초를 샀어요..... 그리고 피웠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편한 곳을 찾기 위해 약물을 했죠."
- 사례 5번

9) 호기심

"아 저는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혼자서 했어요.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 봤어요..... 처음에는 본드로 했어요. 처음에는 본드로 했었고, 나중에는 부탄가스로 했었는데, 청소년이 마약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부탄가스에 계속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 사례 9번

2.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가정적 요인

약물남용 청소년의 대부분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불안을 겪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서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래 청소년과의 소속감으로 이어졌고, 가정이라는 소속감보다는 또래 친구라는 소속감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려 하였고 약물로서 자신의 안전감을 느끼려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 〔표 4-5 〕와 같다.

1) 폭력적인 부모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해서 맞고 자랐지만 저는 진짜 무지 맞았어요. 아버지가 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약물하기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철봉으로 맞았어요. 옷 홀딱 벗겨서 안테나에 묶여 보기도 하고 새벽에 엄마가 몰래 풀어주면 집에 들어와서 자곤 했어요."
- 사례 3번

2) 무관심한 부모

“또 어머니가 장자에 대한 편애가 조금 심하셨어요. 아.. 장자에 대한.. 저는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
- 사례 1번

〔표 4-5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가정적 요인**

	영역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폭력적인 부모	아버지가 때렸음	전형적(7)
2	무관심한 부모	자녀를 돌보지 않음	변동적(2)
3	중독 성향 부모	부모님이 중독자임	전형적(5)
4	부모의 이혼	부모님이 이혼하심	변동적(2)
5	부모의 죽음	부모님이 돌아가심	변동적(2)
6	가족 간 불화	가족 간 사이가 나쁨	전형적(7)
7	가족구성원의 범죄	가족이 교도소에 갔음	변동적(3)
8	낮은 경제 수준	가족의 경제 사정이 낮음	변동적(2)

3) 중독 성향의 부모

“아버지는 매우 엄했어요. 잘못하면 아주 심하게 때렸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 사례 4번

4) 부모의 이혼

“아빠는 저를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렸어요. 엄마한테는 때리지는 않았는데 많이 싸웠어요. 그 때 어렸을 때여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저는 울었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은 이혼했고 저는 아빠랑 살기 싫어서 엄마랑 살았어요.”
- 사례 8번

5) 부모의 죽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발견했거든요. 아... 정말... 그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이미 숨이 멎어계시고 방에서 혼자 몇 시간이나 울다가 태권도에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이야기하고 누나랑 형이랑 아빠한테도 이야기하고 119 불러서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이게 현실 같지가 않아가지고, 죽은 게 맞는 건지 안 죽은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울기만 했어요. 그 고사리 손으로 또 엄마 살려보겠다고... 그랬어요.”
- 사례 7번

6) 가족 간 불화

“사회적 관계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무의식에 있는 아버지나 형과의 관계... 형과의 관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형과의 관계도 불편할 건 없었는데 주위에서 관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어머니도 형을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의 참 모습은 사랑인데 그게 결핍이 된 거죠... ”
- 사례 1번

7) 가족구성원의 범죄

“아... 아빠랑은 사이는 좋은데,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 때문에

감방에 다녀오셨어요.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는 모르는데 한 1-2년 있다가 나오셨어요. 나오신 후에 친근해져서 그때부터 친근해졌어요."
- 사례 7번

8) 낮은 경제 수준

"집안사정이 좀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빚도 좀 늘어가는 게 보였고, 아무리 이제 부모님이 숨기려고 해도 보통은 다 눈치 채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생활이 윤택해지지 못하니까. 그때는 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불안감이 너무 싫어서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
- 사례 9번

3.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

약물남용 청소년의 지역 사회 환경이 매우 중요하였고, 주변 또래 친구나 형제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역 사회의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의 환경이 호기심으로 이어 졌고, 친구나 선배, 누나, 형들의 권유로 약물을 시작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면 〔표 4-6 〕과 같다.

1) 지역 사회 환경

"우리 동네가 이제 동두천인데,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미군들이 검은 봉지를 코에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를 버리고 가길래 저도 한번 봉지를 코에다 대고 따라 해봤지요,"
- 사례 3번

2) 또래 친구 권유

“친구가 다른 동네에서 알아봐가지고 다른 동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알아보고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도 ‘그래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엔 목이 아프고 ‘이게 뭐야’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계속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와 이거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 사례 6번

〔표 4-6 〕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

	영역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지역 사회 환경	동네 사람들이 약물을 함	전형적(6)
2	또래 친구 권유	친구가 약물을 권유함	일반적(9)
3	소속감의 부재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필요해서 약물을 함	전형적(8)
4	역할의 부재	할 게 없어서 약물을 함	전형적(6)
5	관계성 단절	약물하는 친구들 외에는 모든 관계가 단절됨	전형적(7)

3) 소속감의 부재

“나 혼자 천방지축으로 혼자 있다 보니까 울기도 많이 울고 또 항상 나는 낮잠을 자다가도 일어나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어릴 때 자연히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 친구들이 약을 하니까 같이 하게 되었지요.”
- 사례 4번

4) 역할의 부재

“처음에는 제가 돈을 훔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한 초등학교 사학년 때인가 오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때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때 처음 가출을 했었고...그리고 열네 살 때부터는 약물을 하려고 가출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기 싫었고 집에 가면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저를 속박하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집이 싫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가출을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약물을 한 거에요.”
- 사례 9번

5) 관계성 단절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네 후배가 권해서 본드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후배가 권해서 해 봤는데 어느 날부터는 약을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다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 사례 10번

4.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는 개인적 요인에는 학업 태도, 음주, 흡연, 가출, 범죄, 환각, 불안, 호기심 등의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 요인은 낮은 학업 태도, 흡연, 호기심 등의 요인이었고, 전형적 요인은 음주, 가출, 낮은 자존감, 범죄, 환각, 불안 등의 요인이었으며, 자퇴는 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는 폭력적이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와 무력하고 방임적이며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이 가정이 안정된 곳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가정 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또한 입시 위주의 성과를 내야 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역시 약물남용 청소년이 흥미를 잃게 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가출을 반복하고, 학업에는 흥미를 잃은 상태에서 자퇴 등으로 인해 소속감과 역할의 부재를 느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편으로서 선택하는 것이 음주, 흡연, 마약류 흡입등과 같은 약물남용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절도 및 강도와 같은 범죄행위를 이들 대부분의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가정적 요인에는 폭력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중독 성향의 부모,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 가족 간 불화, 가족구성원의 범죄, 낮은 경제 수준 등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폭력적인 부모, 가족 간 불화 등의 요인은 전형적인 요인이고, 무관심한 부모, 중독 성향의 부모,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 가족구성원의 범죄, 낮은 경제 수준 등의 요인은 변동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대부분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불안을 겪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또래 청소년과의 소속감으로 이어졌고, 가정이라는 소속감보다는 또래 친구라는 소속감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된 약물이 안전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지역 사회 환경, 또래 친구 권유, 소속감의 부재, 역할의 부재, 관계성 단절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또래 친구 권유의 요인은 일반적 요인이었고, 지

역 사회 환경, 소속감의 부재, 역할의 부재, 관계성 단절 등의 요인은 전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지역 사회의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약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10명의 연구 참여자의 약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나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하고, 친구들과 계속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그 욕구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 욕구의 결핍을 약물을 통해 채우려는 경향을 보였고, 그 약물의 경험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안전의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약물에 대한 강한 집착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약물남용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제 4 절 약물남용자의 단약 결심 요인

1. 약물남용 경험자들의 단약 결심 요인

약물남용 경험자의 단약 결심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죽을 것 같아서 단약을 결심했고, 둘째는 친구들이 약물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단약을 결심했으며, 셋째는 가족들이 싫어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단약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약 결심의 시기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약물을 하게 되고 대마초를 지나서 강한 약물 중독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 〔표 4-7 〕과 같다.

〔표 4-7 〕 약물남용 경험자의 단약 결심 요인

	영역	범주	응답빈도(사례수)
1	생리적 욕구	약을 하다가 죽을 것 같음	변동적(3)
2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친구들이 싫어해서 단약	변동적(3)
		가족들이 싫어해서 단약	변동적(4)

1) 죽을 것 같아서 단약결심

“몸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도 정신이지만 몸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것을 느꼈던 게 거의 정신병원에서 거의 일주일 정도 밥만 먹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물만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걸 먹으면 계속 설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밤에 잘 때 있

죠. 식은땀이 엄청 나요. 몸이 엄청 식은땀이 나고 두근거린다고 하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구요. 잠을 잘 때도요..."
- 사례 9번

2) 친구들이 싫어해서 단약결심

"중2 후반부터 라카를 했어요. 예전에 라카를 나쁘게 보는 친구들이 저희 중에 있던 거죠. 걔네들이 계속 끊으라고 했어요. 너희랑 못 놀겠다고... 그러니까 끊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끊자' 하긴 했는데 저랑 ○○이는 애들 몰래 가끔 했어요... 우리는 잘 안 끊어져가지고요... 애들이랑 얘기하고 나서부터 끊는데 4-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얘들 몰래 둘이서 '오늘만 딱 하자. 아 오늘만 딱 하자.' 하고 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애들한테 걸릴 뻔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엄청... 진짜 걸릴까봐. 그래서 그냥 안하기로 했죠..."
- 사례 8번

3) 가족들이 싫어해서 단약결심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멋진 남자라고 생각 했어요. 그래서 남자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대마초를 피웠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영웅이 아닌거죠... 아직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 그 엄마에게 기대기로 했어요... 19살... 난 아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이잖아요..."
- 사례 5번

2. 요약 및 시사점

약물남용 청소년이 단약을 결심하는 요인에는 생리적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등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10명의 약물남용 청소년기를 경험한 연구대상자 중에서 5명은 청소년 시기에 단약을 결심하였고, 5명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단약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단약을 결심한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단약을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죽을 것 같아서 결심했고, 둘째는 친구들이 약물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결심했으며, 셋째는 가족들이 싫어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약물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약물을 하는 청소년 또래 친구들의 권유와 그 친구들과의 사랑과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서 약물을 사용하지만 단약을 하게 되는 요인 또한 약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소속되어 사랑과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단약을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약물을 계속하게 된 동기가 2단계의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지만 2단계 안전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1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위협 당할 때는 단약을 결심하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약물남용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결론 및 요약

청소년 시기에 약물을 시작한 약물남용 경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과 그것을 합의적 질적 연구 기법인 CQ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기에 약물을 경험한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최초로 마약류를 흡입한 성인 약물 경험자와는 달리 감기약이나 본드, 라카와 같은 유해 약물로 마약류의 약물 흡입을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약류의 약물을 흡입하기 전에 알코올과 담배를 먼저 섭취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일 먼저 청소년기에 시작한 약물로는 알코올과 담배라는 것은 김헌수, 김현실(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대마초를 사용한 청소년들은 다른 좀 더 강한 약물로 발전했지만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마약류 사용을 멈춘 결과도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대마초는 본격적인 마약류 약물로 진입하는 관문 약물임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것은 진혜경, 신지용(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시기에 약물을 남용하는 유형으로는 모험 추구형, 평화 추구형, 교우관계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성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화 추구형과 교우관계 추구형이 각각 3명씩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모험 추구형, 힘 추구형, 미적 감각 추구형, 초월명상 추구형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고, 성적 추구형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나타났으며, 이것은 장혜수(2000)의 연구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약물남용 유형 중에서 많은 부분이 평화 추구형과 교우관계 추구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약물남용의 유형에서 모험 추구형은 자신의 욕구의 좌절된 경험을 모험적 행동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평화 추구형은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된 감정을 통해 느끼려는 안전의 욕구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의 욕구를 약물로 대체하며, 교우관계 추구형은 약물을 통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고, 힘 추구형과 미적 감각 추구형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느끼게 되는 자아존중감의 욕구를 약물을 통해 대체하려고 하며, 초월 명상 추구형은 자신의 존재를 실현한 존재인 신과 같은 존재, 영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개인적 요인에는 낮은 학업 태도, 음주, 흡연, 가출, 범죄, 환각, 불안, 호기심 등의 9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낮은 학업 태도, 흡연, 호기심 등의 요인은 일반적 요인이었고, 음주, 가출, 낮은 자존감, 범죄, 환각, 불안 등은 전형적 요인으로, 자퇴는 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인숙(2002), 윤민우(2000), 김소야자, 공성숙, 김명아(2000)의 연구 외에도 가출, 음주, 흡연, 낮은 자존감, 범죄, 정신질환, 인터넷 중독, 자살시도, 성매매 및 성폭력을 개인적 요인이라 보았는데 본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시기에 발달되는 자아정체성 형성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달성되는데,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업에 흥미를 잃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흥미를 위한 호기심의 탈출구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으며, 음주, 흡연 및 약물을 선택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즉 가출이나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가정적 요인에는 폭력적인 부모, 무관심한 부모, 중독 성향의 부모,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 가족 간 불화, 가족구성원의 범죄, 낮은 경제 수준 등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폭력적인 부모, 가족 간 불화 등의 요인은 전형적인 요인이고, 무관심한 부모, 중독 성향의 부모, 부모의 이혼, 부모의 죽음, 가족구성원의 범죄, 낮은 경제 수준 등의 요인은 변동적인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홍서아(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정 결핍, 불안한 양육 태도, 대화의 부재, 방임적인 양육 태도 등을 가정적 요인이라 보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대부분은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에 불안을 겪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또래 청소년과의 소속감으로 이어졌고, 가정이라는 소속감보다는 또래 친구라는 소속감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하게 된 약물이 안전의 욕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약물남용 청소년이 되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는 지역 사회 환경, 또래 친구 권유, 소속감의 부재, 역할의 부재, 관계성 단절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또래 친구 권유의 요인은 일반적 요인이었고, 지역 사회 환경, 소속감의 부재, 역할의 부재, 관계성 단절 등의 요인은 전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송광선(2002)의 연구에서도 약물남용의 원인을 또래 친구와 관계 유지를 사회적 요인이라 보았고, 이정혁, 강동욱(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환경과 청소년의 약물남용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지역 사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래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지역 사회의 환경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환경이 호기심으로 이어지면서 약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10명의 연구 참여자의 약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친구나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을 통해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은 청소년들이 그 욕구의 결핍을 약물을 통해 채우려는 경향을 보였고, 그 약물

의 경험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안전의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약물에 대한 강한 집착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섯째, 약물남용 청소년이 단약을 결심하는 요인에는 생리적 욕구,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등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죽을 것 같아서 단약을 결심한 생리적 욕구의 요인은 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들이 싫어해서 단약을 결심하고 가족들이 싫어해서 단약을 결심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의 요인은 변동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양훈(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 또래 애착, 선생님 애착 등이 단약을 결심한 요인이라 보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10명의 약물남용 청소년기를 경험한 연구대상자 중에서 5명은 청소년 시기에 단약을 결심하였고, 5명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단약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에 단약을 결심한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단약을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죽을 것 같아서 결심했고, 둘째는 친구들이 약물을 하는 것을 싫어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결심했으며, 셋째는 가족들이 싫어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약 결심의 시기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약물을 하게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대마초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마초를 경험한 이후에는 강한 약물 중독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연구 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약물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약물을 하는 청소년 또래 친구들의 권유와 그 친구들과의 사랑과 소속감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었지만, 단약을 하게 되는 요인 또한 약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또래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소속되어 사랑과 소속감을 갖고 싶은 동기에서 단약을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약물을 계속하게 된 동기가 욕구의 2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지만 2단계인 안전의 욕구보다 더 강력한 1단계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위협 당할 때는 단약을 결심하는 것을 연구 결과가 나

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 봤을 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청소년기의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요인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예방 교육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물남용 청소년들이 최초로 약물을 경험한 나이가 13.7세로 나타났으므로 약물 예방 교육 시기의 적절성으로는 그 연령대가 13.7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평균적으로 13.7세의 연령은 중학교 1-2학년의 연령이므로 효과적인 약물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약물남용 예방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약물과의 접촉차단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그 전달된 정보들과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대부분이 약물을 무분별하게 접하고 있는데, 약물의 최초의 경험이 친구의 권유로 친구들이 전달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 위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물이 주는 보상적 쾌감만을 인지한 상태로 약물에 빠져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해 호기심이 충족 된다면 친구들이 권유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함께 또래 친구의 권유로 인해 약물을 시작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나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적합하게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기술,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 약물을 거절하는 기술, 또래집단 등의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는 기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 사이에 약물이 생명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대안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취 경험을 느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토론식의 개방적 의사 구조 형태를 제공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룹인 또래 친구들 중에서 약물 강사를 양성하여 성인 강사와 함께 청소년 약물 강사가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전달하면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함께 약물 사용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청소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 모두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원스톱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부의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강은영, 2004, 235). 점점 더 급격한 속도로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의 급증과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볼 때, 전담부서의 설치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책임성 있는 부서가 마련되어져야 각 부처 간의 업무의 이중성이 방지되고, 민간단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 되며,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의 정비를 통한 약물남용 및 중독에 대한 처벌적 접근에서 복지적 차원의 접근으로의 전환도 모색하는 길이 용이해 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방 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교육시킬 강사 양성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이미 약물남용이 된 청소년은 혼자의 힘으로는 약물을 단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물남용에 있는 청소년에게 약물남용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약물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주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가족교육 공동체 소규모 모델을 그룹 홈 형태로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다양하고 풍성한 가족적 경험과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홈 형태의 가족교육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 등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장기간의 지속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운영하려면 우리나라의 약물과 관련된 법규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약물에 관한 규정들은 주로 약물의 남용 및 약물의 제조, 유통, 판매를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주로 법적 규제와 처벌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약물과의 접촉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약물관련 법규를 예방과 치료, 재활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약물 사용의 형사적 처벌 보다는 국민의 보건상의 안전이라는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 복지적 대책들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약물 정책이 제안되고 시행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교육 제도의 개선, 지역 사회의 인식 구조 개선 등으로 인한 민간 단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약물의 청정지역이 아닌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계층은 바로 청소년인 것이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발달 과업상의 과제 앞에 놓인 청소년들은 약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래 친구의 권유 및 인터넷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 가는 환경 속에 있게 되고, 한번 남용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운 약물의 속성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의 증가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 현실 앞에서 청소년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경험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질적 연구로서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연구 참여자의 제한적 인원수라는 한계점과 인터뷰 대상자가 남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제한적 성별의 제약점이 있기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 약물남용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다각도의 심층적인 질적 연구의 병행과 함께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약물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강은영. (2004). 『마약류 예방·관리체계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총서 2004-16,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선경, 문진영, 양동근. (2016).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6(1), 89-113.

강선경, 최윤. (2018). 약물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피해의식에서 책임의식으로의 성장.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1), 191-211.

강철원, 안아람, 손현성, 김현빈. (2019). 『중독인생』. 서울:북콤마

고미영. (2013). 『질적 사례연구』. 서울:청목출판사.

공정원. (2001). 『약물중독청소년의 효과적 치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 헌 수,김 현 실. (2002). 한국청소년 음주 및 약물남용과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41(3), 472-485.

김경빈. (1997). 약물사용 및 약물중독 청소년의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4, 209-223.

김경석 외. (2015). 『중독의 이해와 치료』. 서울:양서원.

김경우. (2006). 지역사회중독심리의 실태와 대안에 관한 연구:청소년 약물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운동재활학회지』, 2(1), 12-32.

김귀분, 이경호.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 『한국간호협회』, 30(4), 917-931.

김남식. (2000). 약물남용에 대한 이론적 이해. 『상담과 선교』, 8(4), 28-47.

김미희. (2002). 청소년의 약물남용 회복경험. 『질적연구』, 질적연구학회,

3(2), 40-54.
김성이. (2002). 『약물중독총론』. 서울:양서원.
김성중. (2014). 청소년 환각물질흡입사범 실태분석 및 대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4(1), 1-21.
김소야자, 김선아, 공성숙, 김명아, 서미아. (1999).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29(1), 150-160.
김승희외. (2006). 『청소년과 유해 약물』. 서울:국립독성연구원.
김정래. (2014). 교육목적으로서의 자기실현의 재음미:매슬로우의 이론을 단초로 한 논의.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철학연구』, 36(2), 49-70.
김주일. (2006). 청소년 약물문제의 사회적 관리. 고려대학교『한국학연구』, Vol.24, 33-69.
김지연. (2017).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38.
김학신. (2012). 마약류 관리법상 청소년의 마약범죄 실태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469-505.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한국아동복지학회』, No.10, 107-135.
대검찰청. (2019). 『마약류 범죄백서』. 서울:대검찰청.
민영숙. (2000). 청소년의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웹 활용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한간호학회』, 30(4), 1055-1065.
박소영, 조아미. (2017). 합의적 질적 분석을 활용한 교사의 청소년인성교육 관련 역량강화 방안. 『청소년문화포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Vol.55, 77-113.
박성수. (2017). 청소년의 물질중독 예방전략-마약류 등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 7(4), 43-62.
박수진. (1999). 『인지적 몰락과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은자, 이정아. (2015). 약물중독 예방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229, 17-24.

박진희, 김소아, 전인식. (2018). 학생들의 게임 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매슬로우 욕구이론을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9), 301-328.

배시화, 황정연. (2015). 고령자 공동 주거의 공간배치 평가론 방법에 관한 연구: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른 공간분류의 통합도 비교를 중심으로.『기초조형학 연구』, 16(6), 통권72호. 217-228.

백형의, 한인영. (2014). 약물중독자의 지역사회 회복경험: 세상에서의 되살이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3), 151-177.

보건복지부. (1997).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중 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 교육 교재』. 서울:보건복지부.

송광선. (2002).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동업. (2014). 청소년 약물남용에 따른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의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4), 309-322.

신윤정. (2004). 청소년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2권, 77-88.

염건웅. (2019).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법학연구』, 19(4), 273-295.

유상재. (2013). 『안티소비성향과 대응사례에 관한 연구:-매슬로우의 자아실현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윤명숙, 채완순. (2010).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한국사회복지학』, 62(3), 271-297.

윤민우. (2012). 부정적인 자아감, 자기 효능감이 마약 사용에 미치는 영향:Self-derogation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1호, 3-26.

윤현준. (2013). 『약물의존자 회복체험 연구: 인간되어감 방법론을 적용하여 』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윤흥희. (2004). 『청소년 약물남용 원인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소우, 김미희. (1996). 약물남용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스트레스硏究』, 4(1), 23 - 40.

이양훈. (2014).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영순, 천성문, 김정희. (2001).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61-185.

이정혁, 강동욱. (2018). 청소년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남용에 대한 범죄실태와 대처방안. 『한국소년보호정책학회』, 31(4).

이훈규, 이경재. (1996). 『청소년이 약물남용 예방 전략』.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이희승. (2008).『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이희윤. (2017).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한 동거자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장혜수. (2000).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적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성권 외. (2007). 『마약학의 이해』. 서울:한성대학교 출판부.

조아미. (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79-95.

진혜경. 신지용. (1999). 청소년 물질남용과 정신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중독 심리학회』, Vol. 3, No. 1, 14-20.

최삼욱 외. (2013). 『유해약물 중독 청소년문제행동 진단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 구 보 고 2013-41. 여성가족부.

최영신. (2005). 비행청소년 약물남용 행태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형사정책연구』, Vol. 62, 45-73.
최은미. (2011). 『NA자조모임을 통한 마약의존자의 회복경험 탐색』. 석사학위 논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최은영. (2008). 『약물중독: 상담학 Best Pratice 시리즈; 상담문제 영역 2』. 서울: 학지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 연구보고서 126.
한부식, 황인옥. (2017). 약물중독자의 회복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0 No.1.
허성욱. (2006).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2), 1-28.
홍서아. (2018). 청소년의 약물중독 실태 및 심리지원 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8(2), 93-115.
홍윤경. (2008). 『가족의 기능적 결손이 청소년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학지사.

2. 해외문헌

Aaron T. Beck, Fred D. Wright, Cory F. Newman, Bruce S. Liese, (2003), 약물중독의 인지행동치료, 서울:하나의학사.
Abraham Maslow, (2009), 동기와 성격, 서울:21세기북스.
Adam Cohen (2004), A Community of Ex-Cons Shows How to Bring Prisoners Back Into Society, The New York Times, Friday January 2.

Anold Ludwig, (2016),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 보기, 서울:소울메이트.

APA, (2015),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서울:학지사.

Bob Howard (2000), Life on the outside begins with a haircut and a job, THE LONDON TIMES, Tuesday September 5.

Caitlin Liu(1994), Delancey Street criminal rehabilitation center urged for San Diego, The San Diego Union Tribune, Monday August 22.

Daniel Girdano, Dorothy Girdano, (1972), DRUG EDUCATION: CONTENT AND METHODS, California: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David Dligman (1997), After 26 years, Delancey Street still offers second chances, San Jose Merrcury News, Sunday, June 29.

Debra Custner (2008), NAWBO's award-winning female entrepreneurs, Bay Area Bussiness Woman, April.

Friedman (2002), The Prison That Think It's a Kibbutz, The Jerusalem Report, January 14.

Gerald D. Adams (1990), Rehab paradise for ex-cons, abusers- 'Sweet equity' built Delancey Street's plush new complex, The San Francisco Examiner, Monday, May.

Glionna J. (2002), Making Rehabilitation Into a Serious Business-Programs: Delancey Street has empowered thousands of ex-cons, and it keeps on growing. Los Angeles Times, Friday, March 29.

Gwen Mazer, (2007), Wise Talk, SF:Council Oak Books.

Jennifer Mason, (199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나남출판.

Jess Sullivan (2000), Rehabilitating futures Delancey Street first stop in life without proson, Daily Republic Saturday, May 13.

John Dewey, (2016),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동서문화사.

John Rice (1980), S.F. prostitutes: scared teen-agers, Oakland Tribune Eastbay, Thursday, October 23.

Joseph Grenny, Kerry Patterson, (2007), Influencer : The Power to Change Anything, NY:McGraw-Hill.

Kaplan. Howard B (1982),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Youth and Society, Dec 1, 14(2).

Mason, W.A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isited (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30(1).

Michael First, Andrew Skodol, Janet Williams, Robert Spitzer, (199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나남출판.

Michael J. Glauser, (1999), The Business of Heart, SF:Shadow Mountain.

Michel Kuhar, (2014) 중독에 빠진 뇌, 서울:해나무.

Owens, T.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59(3)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aul, Jennifer, (2020), 나는 중독 스팩트럼의 어디쯤 있을까?, 서울:학고재.

Richard Denis , (2011), 약물 중독, 서울: NUN.

Rob Sedon (2013), Delancey Street's Mimi Silbert- Harvard on the Embarcadero for the lowest 1%, Common Ground, May.

The Cambridge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2003), Cambridge: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cey Jarvis, Jenny Tebbutt, Richard Mattick, Fonia Shand, (2010), 중독 상담과 재활, 서울:학지사.

〈부록-1〉 :질문의 내용

1. 귀하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2. 나이와 사는 곳을 말해주시겠어요?
3. 언제부터 약물을 사용하셨나요?
4. 사용하신 약물의 종류를 알려주시겠어요?
5. 어떤 계기로 약물을 사용하시게 되었나요?
6. 술과 담배는 언제부터 사용하셨나요?
7. 약물을 사용하실 때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8. 약물을 사용하고 나신 이후의 느낌이나 감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9.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10.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11. 형제들 간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12. 학교 공부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13. 친구들간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14. 약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5. 무엇이 약물을 계속하고 싶게 했을까요?
16. 무엇이 약물을 끊고 싶어 하게 했나요?
17.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18. 학교는 어디까지 졸업을 하셨나요?
19. 청소년기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 무엇이든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ABSTRACT

A case study of drug abusers who experienced drug abuse in adolescence

PARK, JI SOON
Major in Addiction Prevention Counseling
Department of Drug & Alcohol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mid the rapidly increasing drug abuse problem in Korea, the harmful effects of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exposed to drugs in a state in which their brain is not fully developed have reached serious levels,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In terms of the seriousness of this topic, the problem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against drug abuse by adolescents,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is one of the largest problems facing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rugs—focusing on their risks—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the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tasks, and the personal,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

associated with drug abuse during adolesc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and tangibl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drug abuse and examine Maslow's theory as a psychological need for adolescent drug abuse. With this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research subjects who have engaged with drugs during adolescence, we understand the status of adolescents' drug abuse and analyze problems to discover practical alternatives that can be helpful to drug abuse adolescents.

As a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is, in this study, a qualitative CQR (consensual quality research) methodology was conducted with 10 study subjects who experienced drug abuse as adolescents, and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the factors of drug abuse in adolescence were determined based on person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problem of drug abuse is that the famil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imary socialization function in society, faces a crisis, and not only has it been unable to properly perform its role for adolescents, but also the school, the secondary socialization agency, has suffered a lack of parenting in such families. The society selected a positive and healthy socialization process instead of drugs for their youth because it was revealed that the adolescents who felt alienat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had chosen drug abuse, as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al task of forming their own sense of self-identity. We have the duty to make it come true so that we can grow into healthy social citize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drug abuse prevention by analyzing the personal, family, and social factors that caused drug abuse in adolescent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study

subjects who experienced drug abuse as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drugs, drug abuse, factors of drug abuse, desire theory